

50+세대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포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14:00~16:00

포럼 시간표	2P
서울시 50+정책 및 사업 소개	3P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23P
서울시50플러스북부캠퍼스 운영을 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31P
「동북권50+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59P

50+세대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포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14:00~16:00

사회자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50+워킹그룹 이은경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접수 및 사전 안내	
14:00~14:20	개회 및 환영인사	
14:20~14:35	서울시 50+정책 및 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소랑 박사
14:35~14:50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앙코르파트너즈 김만희 대표
14:50~15:0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서울시50플러스북부캠퍼스 운영을 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연구결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 북부교육상담팀 양안나 팀장
15:05~15:20	「동북권50+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50+워킹그룹 김미희 PM
15:20~15:30	쉬는 시간	
15:30~16:00	- 관련 질의 응답 및 토론 - 마무리	

서울시50+정책 및 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소랑

서울시50+정책 및 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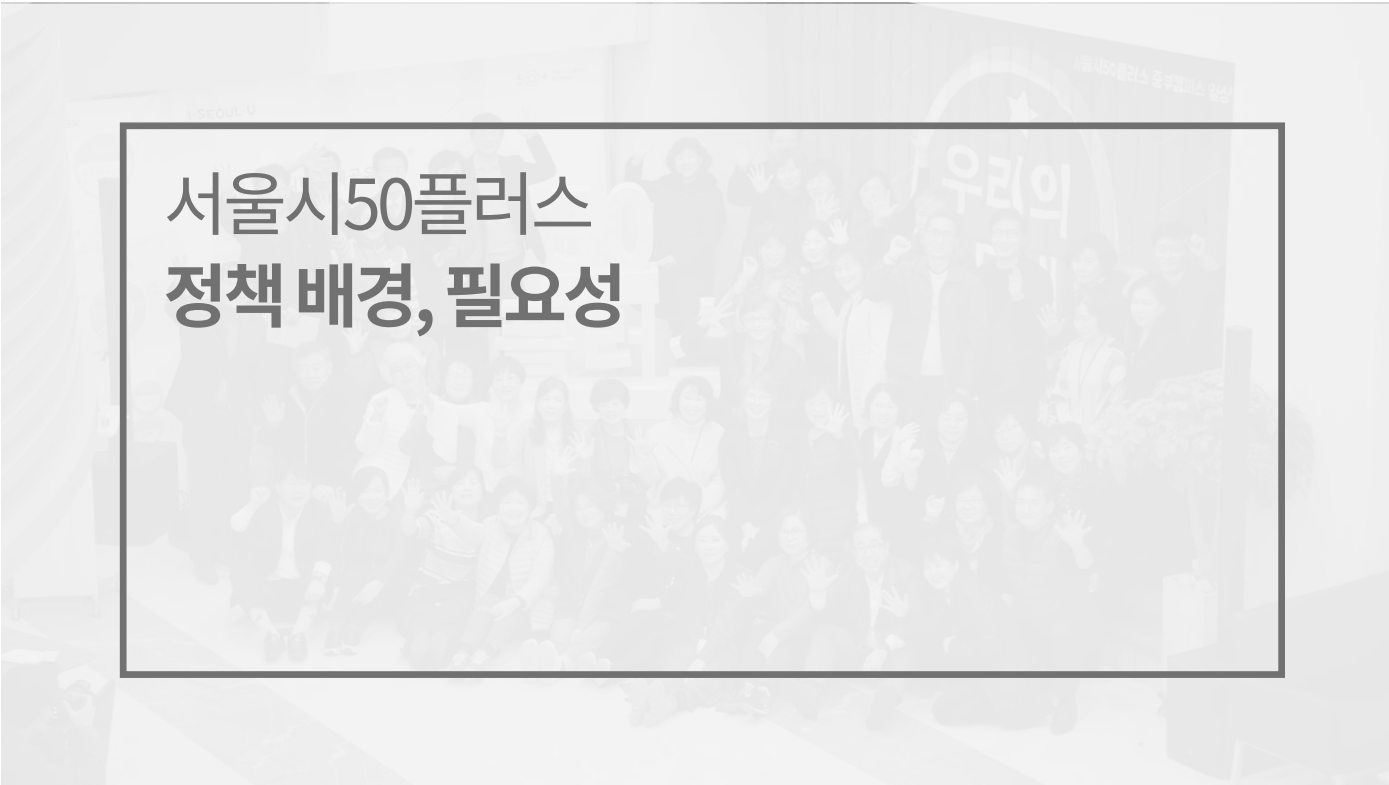
50+의
가능성을
열다

서울시 50+정책 및 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1



서울시50플러스
정책 배경, 필요성

50+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50+세대는 은퇴 전환기에 위치한 세대로서, 노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충분한 사회생활의 역량이 있음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세대임
- 이처럼 50+세대가 정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된 이유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개인적 준비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조기 은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서울시 총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서울시 50+세대는 2019년 223만 명으로 기존 노인세대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세대임
- 생애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고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고학력자가 많으며, 자녀부양을 위한 지출이 많은 시기임
-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3

급격한 변화 앞에 선 50+

불안합니다

4명중 3명
‘노후자금 부족’

캥거루족,
자녀부양에
허리띠는
50+세대

변화된
관계 속에서
부적응

“100세 시대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더 일하고
싶습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53세

남성의 53.1%,
여성의 31.6%
퇴직 후에도
일할 의향

10개월만에
재취업(70%)
등으로
경제활동 계속

“퇴직하면 맘껏 놀아야지 했는데
노는 것도 하루이틀이예요.
일이 없으니 우울해져요.”

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47개소,
이용연령 70세 이상

경로당
64,568개소,
이용연령 80세 이상

50+ 세대를 위한
시설은 절대 부족

“등산이나 운동 말고 일하느라
못해 본 활동을 하고 싶는데
갈만한 곳이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출처: 서울통계

출처: 전국통계

4

50+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50+세대는 정책의 지원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종전 복지서비스 개념을 탈피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
- 따라서 50플러스정책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50플러스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50+세대 생애전환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사회공헌일자리, 창업, 창직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원함
-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수립
- 서울시는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여가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4대 중점 추진과제, 5개 분야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지원체계: 베이비부머 지원 전담조직 신설, 베이비부머 위원회 운영, 소통강화, 조사연구 기능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5

50+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2014)> 추진과제, 추진전략

비전	베이비부머 희망 붐업(Boom up), 서울!			
추진 과제	중점 과제	1.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2. 50플러스캠퍼스 설립운영	3.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허브 구축 4. 베이비부머 지원단 구축	
	분야별 과제	교육	사회공헌	건강여가
추진 전략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은퇴실계 콘서트 개최 • 온라인 인생학교 구축 • 시민대학 베이비부머 특화강좌 확대 • 직장 내 베이비부머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마을 컨설턴트 양성 •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검진율 향상 • 베이비부머 정신 건강검진 실시 • 베이비부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베이비부머 생활체육지도 활동 강화 • 베이비부머 특화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체계 마련 • 창·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베이비부머 일자리플러스 엑스포 개최 • 민간기업 취업연계 강화 • 청년창업 멘토단 운영 •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베이비부머 10대 적합일자리 추가발굴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 베이비부머 대상 정보제공 및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자립을 돕는 보충적 지원과 역량활용에 중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및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실행 • 타 공공민간 부문과의 적극적 협력 및 참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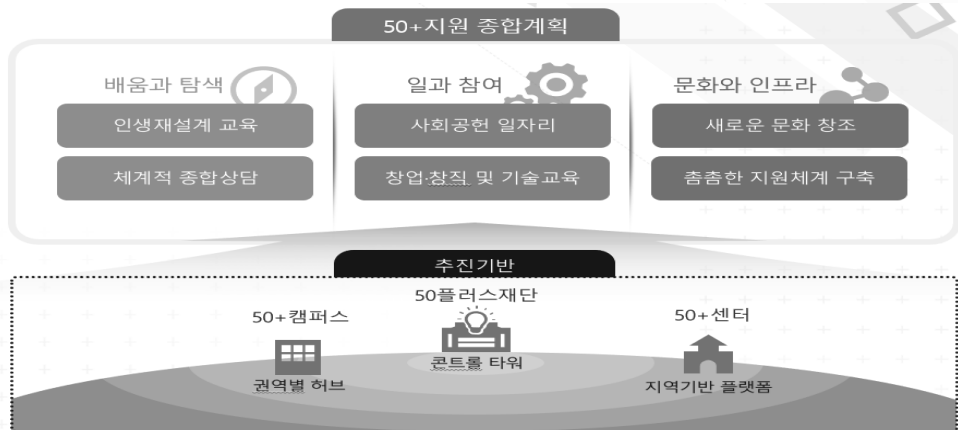
자료: <오랫차차 멋진 후반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2014>. 서울시장 방침.

6

50+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서울시는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발표

- 배움과 탐색, 일과 참여, 문화와 인프라 3개영역과 인생재설계 교육, 체계적 종합상담,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창직 및 기술교육, 새로운 문화창조,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6대과제를 발표



7

50+지원 종합 계획

50플러스재단 현황

- 명 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 설 립 2016. 04. 28.
- 조 직 3본부, 1센터(1사업단, 3캠퍼스)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자료: 2019. 3. 1. 기준

50+세대의 아지트 50+캠퍼스

지역별로 특화하여 권역별 6개소 설치

2016

- 1 서부 (개관 '16.3)
세대통합 & 공공일자리
은평 통일로 684
36억원, 3,956㎡ 리모델링
③ ⑥ 불광역

- 2 중부 (개관 '17.3)
창업, 창작 & 미디어
마포 백범로 31길 21
156억원, 4,509㎡ 리모델링
⑤ ⑥ ⑧ ⑨ 공덕역

2018

- 3 남부 (개관 '18.3)
마을 & 대학연계
구로 오류로 36-25
286억원, 5,714㎡ 신축
⑦ 천왕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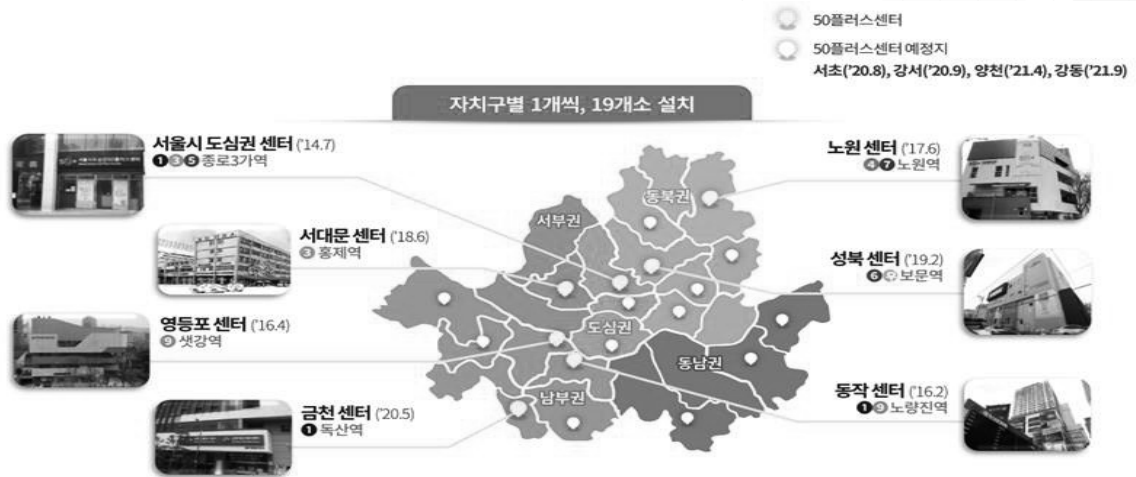
- 6 동부 (준공 '21.12 예정)
대학 & 중소기업 연계
광진 자양동 57-153
241억원, 5,000㎡ 신축
⑦ 독성유원지역

- 5 동남 (준공 '21.9 예정)
50+소셜벤처 & 기업연계
강남 테헤란로 7길 22
연면적 3,837㎡ 공공기여
② ④ 강남역

- 4 북부 (준공 '20.9 예정)
문화산업 창업 & 연수
도봉 창동 1-8
153억원, 5,600㎡ 신축
① ④ 창동역



지역에서 더 가까이 50+센터



11

주요사업 50플러스캠퍼스운영

상담부터 교육, 일·활동까지

삶의 전환을 마주하는 50+세대를 위한 공간인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지원, 일과활동의 플랫폼으로써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종합상담

-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종합상담센터
- 50+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년배 상담
 - 맞춤형 학습설계, 생애7대영역 상담 및 컨설팅
 - 경력분석, 욕구파악 등을 통한 다양한 일모델 제공 및 직업전환 지원

● 50+전환교육

세대적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50+교육프로그램

- 관심사와 선호에 따라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위한 3개 과정 (생애전환, 일·활동 탐색, 생활·문화·기술) 운영
- 50+당사자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공모진행

● 50+활동지원

50+세대의 일·활동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

- 일·학습·문화·사회공헌 등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지원
- 캠퍼스 기반 일·활동 연계 및 창업·창직 공간 지원
- 교육 콘텐츠를 가진 50+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기획 운영 지원

12

주요사업 50+일모델 개발 및 확산

자원봉사부터 취·창업까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모델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부터 취·창업까지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50+일·활동 생태계 확장을 통해 50+세대의 직업전환을 촘촘히 지원합니다.

● 50+일자리모델 발굴 및 사업화

50+일자리 수요발굴 확대를 위한 채널확장 및 신규 일자리 제공

- 공공·민간파트너십을 통한 50+일자리 모델 발굴
- 신규 일자리 발굴 프로세스를 통한 일·창업모델의 사업화
- 50+적합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형 일자리 발굴
- 귀농·귀촌 일모델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 50+일자리지원체계 구축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지원체계

- 50+포털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 창업·장직·협업을 위한 공유사무실 운영

● 서울형 앙코르 커리어 사업

개인의 성취와 사회공헌을 충족하는 앙코르전환지원과 새로운 영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활동 디딤돌 제공

- 서울50+인턴십 운영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 앙코르 커리어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헌형 일자리 확산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해결과 맞물린 새로운 일·활동탐색의 기회

- 서울시50+보람일자리 사업 총괄 및 운영 지원
- 보람일자리 직접 사업수행, 통합홍보 및 성과확산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0+역할강화

지역거점 취약계층 대상 50+사회공헌 활동 지원

-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0+적합 사회공헌모델 구축
- 고학력, 전문직 퇴직자 맞춤형 사회공헌 콘텐츠 발굴 및 강화

주요사업 50+맞춤형 정책개발

50+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50플러스재단은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50+세대에 주목한 서울시50+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체감도 높은 현장 이슈에 맞는 50+정책연구사업 추진으로 정책리더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50+정책 및 기획연구

서울시 정책개발 및 재단 사업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국내외 50+동향 및 50+특성 분석
- 50+정책 이슈발굴 및 정책기획연구

● 50+시민연구 활동지원

50+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50+시민연구 활동 기회 제공 및 컨설팅, 결과 환류체계 구축

- 50+당사자 연구 공모사업 진행
- 50+당사자 정책제안포럼

● 50+정책 확산

시의성 있는 50+정책정보 및 국내외 동향 제공, 연구결과 확산

- 온·오프라인 정책동향리포트 발간
- 정책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50+지원 ① 배움과 탐색(서울시50+재단, 50+캠퍼스)

50+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동년배 50+컨설턴트와 함께하는 50+상담센터

생애주기 7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50+세대가 친구 같은 상담으로 인생2막의 고민을 해결

50플러스센터, 평생학습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찾아가는 인생설계 상담 제공

2019년 12월말 누계 상담실적

76,093 건

50+ 정보제공 및 교육, 일, 여가, 재무를 포함한 라이프플랜 상담



50+상담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 인생후반전 설계에 필요한 7대 영역 상담(일, 사회공헌,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여가, 재무, 건강)을 컨설턴트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대면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표준화된 상담도구 활용과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서비스 질을 유지, 개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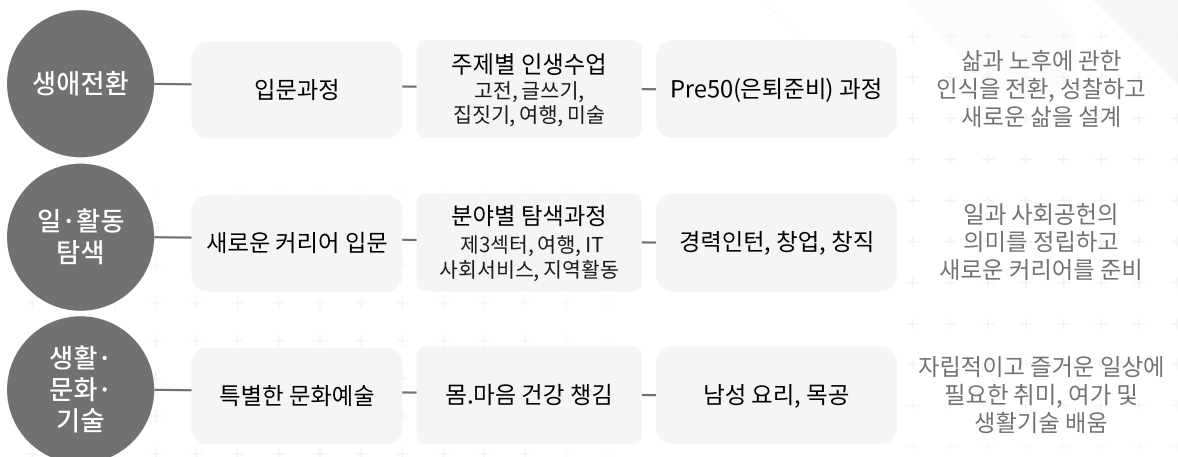
50+교육

- 50+캠퍼스 교육과정은 학기제를 중심으로 3개 분야(생애전환과정, 일활동탐색과정, 생활문화기술과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제안교육과정 등 기획과정을 캠퍼스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 이후 커뮤니티 결성, 사회참여 및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9

전환교육 교육과정



20

복지의 수혜자에서 기획과 참여의 주체로



50+커뮤니티

- 50+세대가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커뮤니티간 네트워킹, 강좌 개설, 사회공헌활동 등의 지원과 함께 50+커뮤니티지원단을 통한 상시 상담, 컨설팅을 제공



커뮤니티플러스부터 50+단체 지원사업



구분	커뮤니티플러스	→ 커뮤니티 프로젝트	→ 단체설립 지원	→ 공익활동 지원
지원대상	개인	개인	개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목적	캠퍼스 수강생들의 다양한 활동 장려와 네트워킹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활동 무대 확장 (커뮤니티 성장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단체 설립 지원을 통한 사회 공헌 및 일자리 창출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및 50+단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자격	3명 이상의 50+세대가 참여하는 5명 이상의 모임	커뮤니티플러스 참여 경험에 있는 2년차 이상 커뮤니티	50+세대 5명 이상의 당해 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모임	서울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50+단체
지원내용	커뮤니티 활동비	프로젝트 지원금	설립과 관련된 비용	공익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금액	50만원/연장 25만원	100만원/연장 50만원	100만원	500만원/1,000만원
모집방식	매월 1회	년 1~2회	년 1회	매년 공모(1회)
주관기관	캠퍼스	캠퍼스	캠퍼스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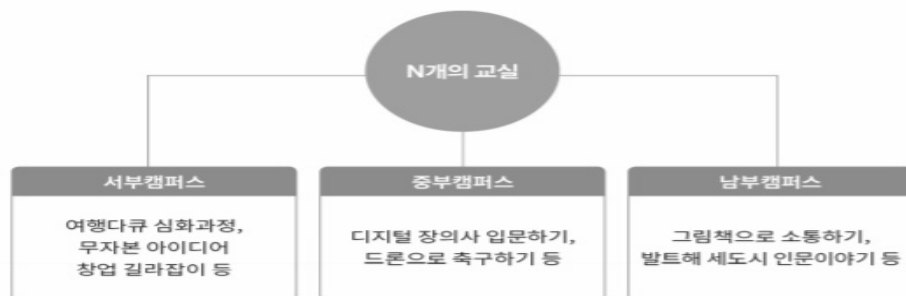
50+당사자 콘텐츠 참여 기회 확대: N개의 교실



-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강의 활동을 희망하는 50+세대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캠퍼스 내에서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N개의 교실' 과 지역사회에서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50+강사가 간다' 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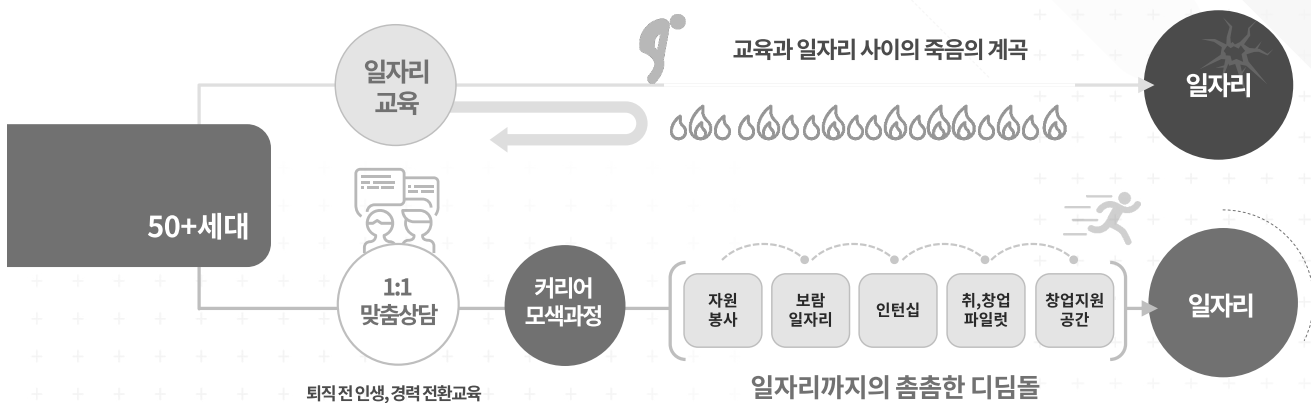
구분	N개의 교실(매월)	50+강사가 간다(시범사업)
대상	교육 수강생 및 커뮤니티 구성원	캠퍼스 내 강좌 운영 경험자
방법	서면심사 → 발표심사	서면심사
장소	캠퍼스 강의실	지역사회 내 공간

'N개의 교실' 77개 강좌



50+지원 ② 일과 활동 (서울시50+재단, 50+캠퍼스)

일자리까지의 촘촘한 디딤돌 제공



앙코르커리어 전환지원 체계도



유형과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50+사회공헌단(자원봉사단)

- 50+세대의 사회공헌활동 희망 욕구와 50+세대에 대한 사회적 역할 요구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50+사회공헌단을 발족하여 50+세대의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을 마련
-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서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50+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50+사회공헌단 사업을 추진

우수사례 : 50+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이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실현

50+생활금융교육 사회공헌단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내용 : 금융지식 취약계층 및 관련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생활금융 교육 활동의의 : 퇴직 금융인들의 전문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또 다른 사각지대인 탈 시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1:1 맞춤 서비스 제공 (2인1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내용 :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동의의 : 50+커뮤니티 4개 팀(실버제조팀, 발마사지팀, 노인교구지도사팀, 사진팀)이 하나의 50+사회공헌단으로 연대하여 활동의 외연을 넓히며 새로운 활동형태 확장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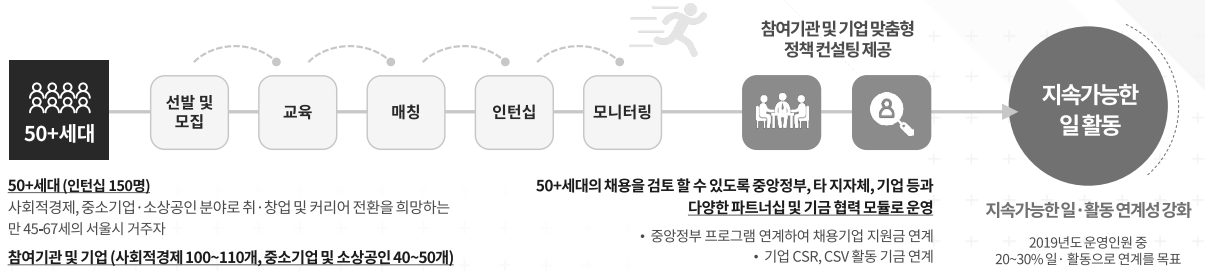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사회공헌일자리)

-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50+세대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서울시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장애인시설지원단, 50+IT지원단,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장애학생학습지원단 등
- 마을 일자리: 공공복지서포터즈, 우리동네돌봄단,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등
- 사회적경제 일자리: 50+자활기업지원단
- 세대통합 일자리: 청소년시설50+지원단, 학교안전관리지원단, 한지붕세대공감코디네이터, 경로당복지파트너
- 당사자 일자리: 50+학습지원단, 50+컨설턴트, 50+커뮤니티지원단

30

지혜를 채용하라 서울50+인턴십

50+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 등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현장경험+ 교육과 실습」의 실질적 기회 제공
사회적경제 영역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취·창업 기회 마련



연도별 KPI	2019 서울 50+인턴십 파일럿 [150명]	2020 운영 체계화 및 확장 [200명]	2021 인턴십 운영 고도화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운영 기반 조성: 운영계획, 가이드라인 캠퍼스 별 세부사업 운영: 매칭데이, 인턴십, 모니터링 대시민 홍보 및 인지도: 설명회, MoU 기간: 모집(4-6월), 활동(6-11월), 평가 (11월), 결과보고(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운영 기반 체계화: 운영지침, 매뉴얼 등 인턴십 무대 확장: 신규 영역 확장 인턴십 사업 생태계 조성: 연계업무 개발 및 확대, 기관·기업 네트워크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성과, 차별성 입증: 인턴십 참가자 후속 조사 연계지원 방법의 체계화 국내외 성과 확산 및 경험 공유: 국내외 포럼 개최 및 참석

50+당사자연구사업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단체 및 개인 연구자를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이슈 발굴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제안 등 당사자 주도형 연구사업
- 50+세대 시민연구자의 현장사례연구를 지원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대
- 체감도 높은 현장 이슈 발굴 지원하여 50+정책의 실효성 제고

50+당사자가 묻고 제안하는 코워킹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재민, 강우진, 김명희

009

자활사업 분야에서 50+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 전환 일자리 모델 발굴을 중심으로

구세민, 노영배, 오영란

005

세대간 협력형 공유주거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을 중심으로 -

김기영, 윤영재, 임우현, 김우홍

001

50+당사자연구사업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50+센터(자치구) 사업



서울시 50플러스센터

○ 50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 50플러스센터는 50플러스캠퍼스가 미설치된 자치구 19개 지역에 건립을 목표로 2020년 07월 기준 7개소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가 운영 중이며, 4개소(서초, 강서, 양천, 강동)는 추진 중에 있음



서울시50플러스센터 주요 사업

	세부 사업	내용	
인생설계 사업	상담사업	50+세대들이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상담, 생애설계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포함	
	교육사업	주체적인 삶의 전환을 위해 인문학, 문학, 문화, 예술, 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함, 50+세대가 인생 후반기의 비전 수립을 위한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타 교육사업	그 외 50플러스센터의 지역적 다양성에 따라 운영하는 특화사업	
일·활동 사업	일·활동지원교육: 일·활동탐색과정, 일·활동참여과정, 역량개발과정	50+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취업, 창직, 창업, 봉사, 사회공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참여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일자리 사업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50+세대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서울시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유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기타 일자리사업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외에 50플러스센터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기타 일자리사업(예: 서울시50+인턴십사업 등)
	창업, 창직	맞춤형 교육을 통한 50+일·활동 성장을 지원해주는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 창직이 양성	
기타 일·활동사업	그 외 50플러스센터의 지역적 다양성에 따라 운영하는 특화사업		

서울시50플러스센터 주요 사업

당사자 지원 사업	커뮤니티 사업	커뮤니티발굴	단체설립, 사회공헌, 취·창업 등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커뮤니티를 발굴하기 위한 모집과정
		커뮤니티운영	커뮤니티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진출의 활로 마련을 위한 공간지원,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프로젝트)네트워킹 지원 등의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과정
	당사자기획사업		재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50+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강의하는 50+세대 주도 열린 학습의 장
	기타 당사자지원사업		그 외 50플러스센터의 지역적 다양성에 따라 운영하는 특화사업
홍보	홍보매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자 확대, 50+콘텐츠 생산 및 50+신문화 확산
	기타 홍보		그 외 50플러스센터의 지역적 다양성에 따라 운영하는 특화사업
기타 사업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당사자지원사업 이외에 자치구 50플러스센터의 특수성, 다양성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자치구 특화사업 등)		

50+의
가능성을
열다

감사합니다.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양코르파트너즈 김만희 대표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양코르파트너즈 김만희 대표

50+의
가능성을
열다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김만희 대표 / 양코르파트너즈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1

1) 현황 분석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한 시사점

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현장 인터뷰

전달체계의
일반 요건

정책 4년차
50+전달체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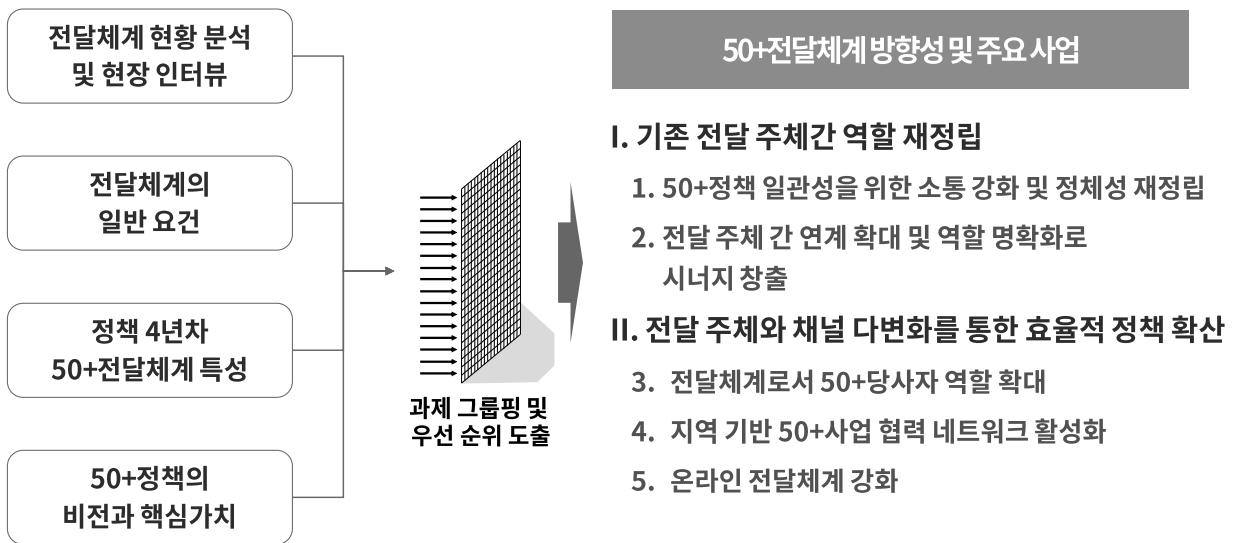
50+정책의
비전과 핵심가치

시사점

- ✓ 조직형태, 거버넌스 차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또 수직적 관리체계 보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 캠퍼스와 센터 간 역할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큼 → 50+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고객 관점 및 효율적 자원 활용 관점에서 재단 본부, 캠퍼스, 센터 간 “따로 또 같이”에 기반한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 캠퍼스와 센터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캠퍼스, 센터 뿐 아니라 50+당사자와 지역 기관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수
- ✓ 코로나19, 4차 산업 가속화, 그린뉴딜 등 환경 변화와 50+정책 5년째 → 전달체계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및 온라인의 순기능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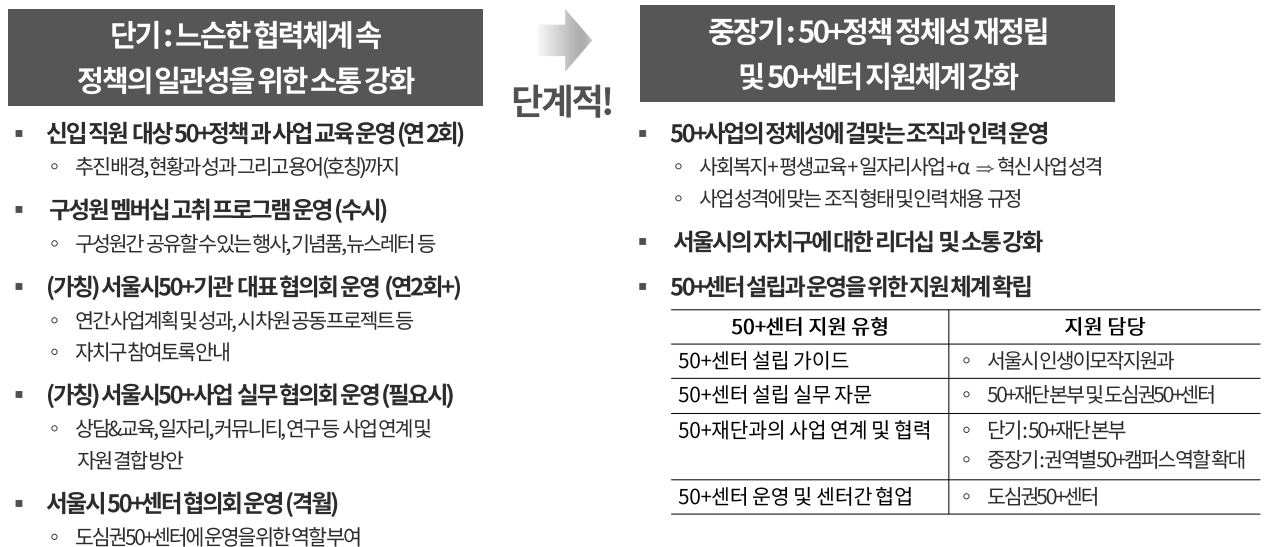
2

2) 전달체계 방향성 수립 및 주요 사업 도출



3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① 50+정책 일관성을 위한 소통 강화 및 정체성 재정립



4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② 전달주체 간 연계 확대 및 역할 명확화로 시너지 창출

50+센터 공유서비스 및 재단 & 센터 간 협업 사업 확대



50+재단, 센터 간 포지셔닝 및 역할 명확화

공유서비스 예시

- 구성원 교육 및 조직운영
- 상담센터운영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파견, 상담사례관리 등 인프라제공
- 자치구단위 지역자원조사지원

협업사업예시

- 생애전환기본 과정은 센터 → 심화과정은 캠퍼스
- 50+자원봉사단의 자치구단위부터 서울시단위운영
- 센터육성커뮤니티대상 재단캠퍼스에서 인큐베이팅, 파일럿 테스트 기회 부여, 자금지원 등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센터발굴 공헌형 일자리 수요를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으로 배정 확대

50+재단본부

- 서울시50+정책방향성과사업전략수립의 싱크탱크(Think Tank)
- 50+정책수행의 기반인프라 구축(예산, 인력 등 제도, 온라인 인프라)

50+캠퍼스

- 50+당사자를 새로운 가치와 이어주고 디딤돌을 제공하는 전환의 공간이자 심화 단계의 당사자 지원 공간

50+센터

- 50+당사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하는 실험과 자율성의 공간
- 50+당사자와 지역을 이어주고, 자치구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마을, 복지, 일자리,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② 전달주체 간 연계 확대 및 역할 명확화로 시너지 창출(계속) 50+

표: 50+재단 본부, 캠퍼스, 센터 간 역할 분담 요약 (차이점을 중심으로)

	50+재단 본부	50+캠퍼스	50+센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50+세대 상담 공간 운영 • [일자리] 50+일·활동 사업: 사회공헌일자리, 취업 및 창업 창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생애전환기본 과정 50+커뮤니티 발굴, 활동 등 • [사회공헌] 50+자원봉사단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50+센터 설립 및 자문 • 50+정책 대표 협의회 준비 • 구성원 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권50+센터가 자치구50+센터의 실무 지원 • 기관으로서 역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자치구별) 지역 자원조사 지원 (50+당사자 연구 과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캠퍼스와 센터는 자체 연구 보유하지 않고 재단 본부의 정책연구센터와 협업 • 중장기: 캠퍼스의 권역별 연구소 기능 확대 (정책연구센터와 역할분담 논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매뉴얼, 성과 등 관리 • 상담인력양성, 공통의 상담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영역 전문 상담 제공 • 필요 시, 센터에 상담인력파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정책, 센터 사업, 자치구 정보 상담 제공 • 타 분야 전문 상담은 권역 캠퍼스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교육 사업 관련 조정50+정책교육&상담 사업 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전환심화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전환(인생설계) 기본과정 운영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단 운영 및 센터별 사업 배정 (매년 사업 평가) • 50+정책 일자리 분야 협의회 운영 • 50+당사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체계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보람일자리외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혼합형, 생계형 일자리 발굴 • 50+당사자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는 권역별 센터 및 커뮤니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50+보람일자리운영 확대 • 자치구별 신중년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확대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50+당사자 단체, 기업 참여 확대 • 50+당사자 중심 활동, 공간 제공
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정책 차원의 50+운동 기획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50+자원봉사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기반 50+자원봉사단 운영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③ 전달체계로서 50+당사자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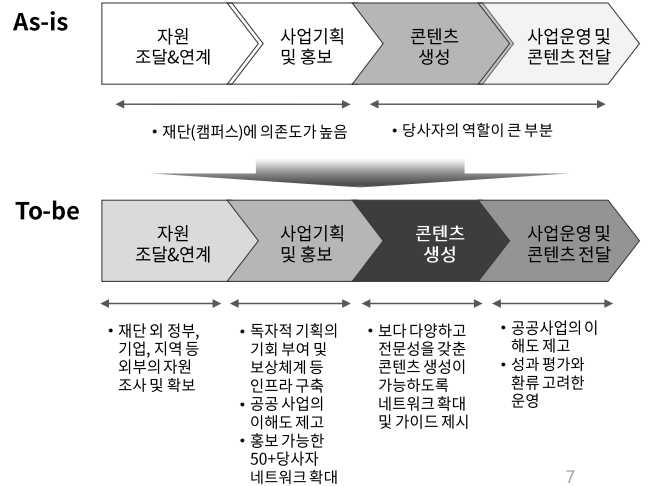
50+사업에서의 당사자참여 역할 확대

표 : 50+당사자 참여 사업에서의 주된 역할 및 프로세스

50+당사자 활동의 주된 역할 및 참여 프로세스						사업 예시
주된 역할	R	P	C	D	무대	
컨텐츠 생산 및 전달		-	○	△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시민제안 콘텐츠(N개의 교실) 양코르커리어강사단
사업 운영 및 콘텐츠 전달 (콘텐츠 생산 일부 기여)		-	△	○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컨설턴트, 50+학습지원단, 50+커뮤니티 지원단, 50+보람애니저
컨텐츠 생산	재단	-	○	-	재단	50+당사자 연구
컨텐츠 생산 (당사자 조직화, 활동)		-	△	△	재단	커뮤니티플러스
		-	○	△	외부	커뮤니티 프로젝트, 50+단체 새싹지원
		-	○	○	외부	50+단체 성장지원
컨텐츠 전달 (콘텐츠 생산 일부 기여)		-	△	○	외부	50+자원봉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자원연계	외부	△	○	○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크콘서트나 의보물같은 실패 이야기 실패한 취미 부활전
재단과 독자적인 사업	외부	○	○	○	외부	50+단체 및 기업의 외부 독자 사업

- 50+당사자참여 프로세스 확대
- 자원조달과 네트워킹 연계, 기획 부분에서의 역할 강화

그림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서의 50+당사자 역할 확대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③ 전달체계로서 50+당사자 역할 확대

50+세대 독자적 일 활동 포용 체계 마련

- 50+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인 경우에도 활동 모니터링, 지원 및 성과 공유 체계 마련

표 : 독자적 활동 50+당사자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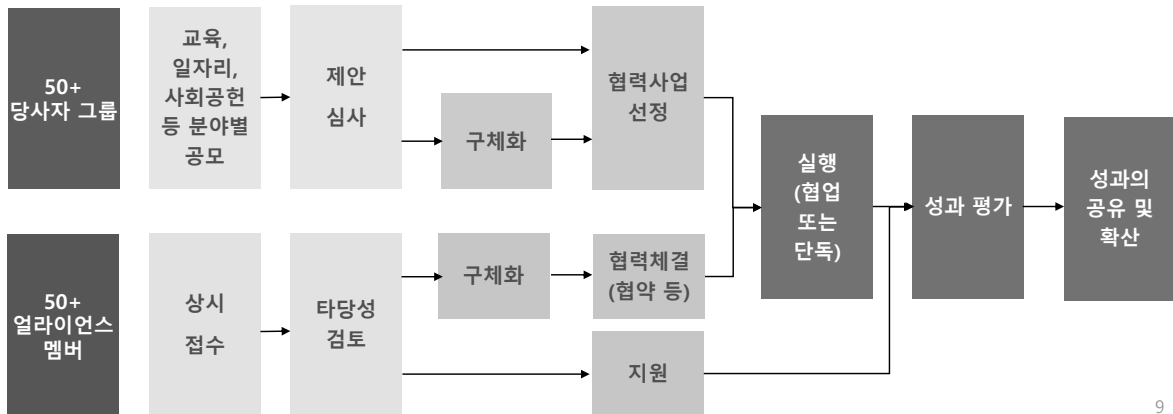
유형	세부 내용
(가칭) 50+얼라이언스 발족 및 초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운동(50+movement),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룹 (개인, 커뮤니티, 단체, 기업 등)을 가칭 '50+얼라이언스'라 구성하여 협업 촉진 기본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수행하는 느슨한 협력 체계이나,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과 자원을 결합할 수 있는 50+정책 확산의 플랫폼 역할 수행 초기 50+얼라이언스 멤버는 50+재단과 협력 경험이 있거나 검증 가능한 그룹 (개인, 커뮤니티,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50+재단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되, 추후 얼라이언스 자체적으로 멤버 선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함 <p>※ 지향점으로는 미국의 양코르 네트워크(https://encorenetwork.org/), 운영 형태로는 행복 얼라이언스 (https://www.happyalliance.org/) 참고</p>
활동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얼라이언스 활동은 권역별, 활동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이슈 파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담당자 지정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당사자 그룹이 50+운동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운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얼라이언스 멤버로서 레퍼런스 제공, 50+홈페이지, 언론 등 홍보 지원, 다양한 외부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얼라이언스 멤버의 경우 상시 (또는 월간) 제안접수 및 검토 프로세스 운영
성과 공유 및 보상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에 한번 50+얼라이언스에 대한 성과를 공유 (필요한 경우 활동에 대한 리워드 체계 마련)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③ 전달체계로서 50+당사자 역할 확대

50+당사자 역할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

- 상시협업가능 프로세스 수립 및 담당 인력 확보
- 협력활성화를 위한 내부 성과 지표 및 HR 체계 재정립
- 공공자원 연계, 활용을 위한 50+당사자 대상 교육 강화

그림 : 50+당사자와의 상시 협업 가능 프로세스 (예시)



9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④ 지역기반 50+사업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환경변화와 사회이슈 고려한 50+의 새로운 역할 분야 발굴

- 코로나19로 그린뉴딜 등 사회패러다임 변화
- 심화되는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도시와 농촌) 갈등
- 고용 없는 성장과 4차산업 혁명 가속화

신중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신중년과 지역을 잇는 50+정책의 미션 강화
- 권역별, 자치구별 협력 파트너 발굴: (예) 주민자치, 마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일자리, 중소기업 등
- 광역단위 협력 파트너 발굴: (예) 대기업, 공공기관, 기존 사회공헌 얼라이언스

지방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정책 교류 및 확산

- 지방에서 '신중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사업 증가로 서울시에 대한 관심 증가
- 서울의 공공 주도 50+운동에 대한 글로벌 관심 높음
- 50+당사자 운동을 활용한 지방과 글로벌과의 50+정책 교류 확대

협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환경 구축

- 구성원 협력역량 교육 강화
- 협력의 과정이 축적될 수 있게 조직과 체계 구축
- 구성원 및 50+당사자 대상 지역자원 조사 및 협력 관련 교육, 활동 확대
- 협력 관련 성과가 반영되는 지표 재정립

10

3) 사업별 주요 실행 과제 ⑤ 온라인 전달체계 강화

전산화를 넘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캠퍼스 역할

- 현재 기존 정보와 콘텐츠 제공, 수강신청 및 개인 정보 관리, 간단한 문의와 상담
- 최근 확장 중인 온라인 강좌 등 온라인 콘텐츠의 지속 확대 중
- 50+ 온라인 캠퍼스로 구축 로드맵 수립 필요
 - 비대면(Untact)만이 아닌 더 풍부한 만남(Ontact)이 가능케 하는 솔루션
 -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코로나로 가장 타격이 큰, 커뮤니티 및 당사자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지?
 - 유사 온라인 교육 포털(서울자유시민대학 등)과 차별화 및 연계 활용 방안
 - 온라인 캠퍼스로서의 기능, 추진 로드맵, 예산의 재정적 필요

+
온오프
통합!

수요 발굴과 협력의 촉진자, 온오프 통합 플랫폼 역할

- 50+ 당사자(공급)만의 정보 축적 외 대부분은 홍보 등 정보의 아웃바운드 채널 역할
-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별도의 채널로서 동작하는 것을 최소화 필요
- 50+ 플랫폼으로서 기능 고민 필요
 - 새로운 수요와 공급 발굴 및 서로를 연결하는 기능
 - 50+ 당사자 역할 증대, 지역 기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의 가능자 (Enabler) 역할

서울시50플러스북부캠퍼스 운영을 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 북부교육상담팀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북부캠퍼스 운영을 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 북부교육상담팀 양안나



서울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연구

2020.08.

정책연구센터

CONTENTS

I. 조사연구 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종합결론

1. 동북4구 주요환경 이슈
2.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수요 요구 분석_연수시설 요구

III. 제언

1.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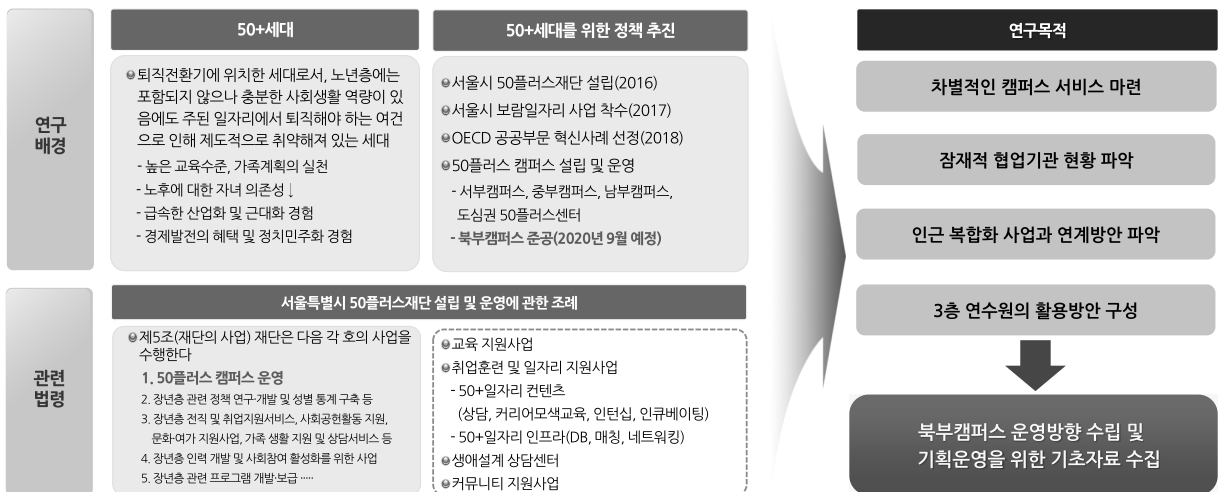
I. 조사연구 개요

서울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_2

1. 연구 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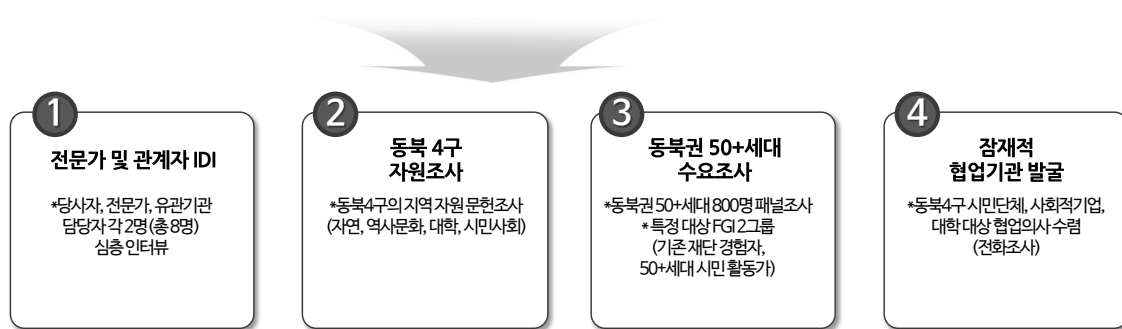
SOUTHERN POST

1. 연구 개요

1.2. 기본 연구 수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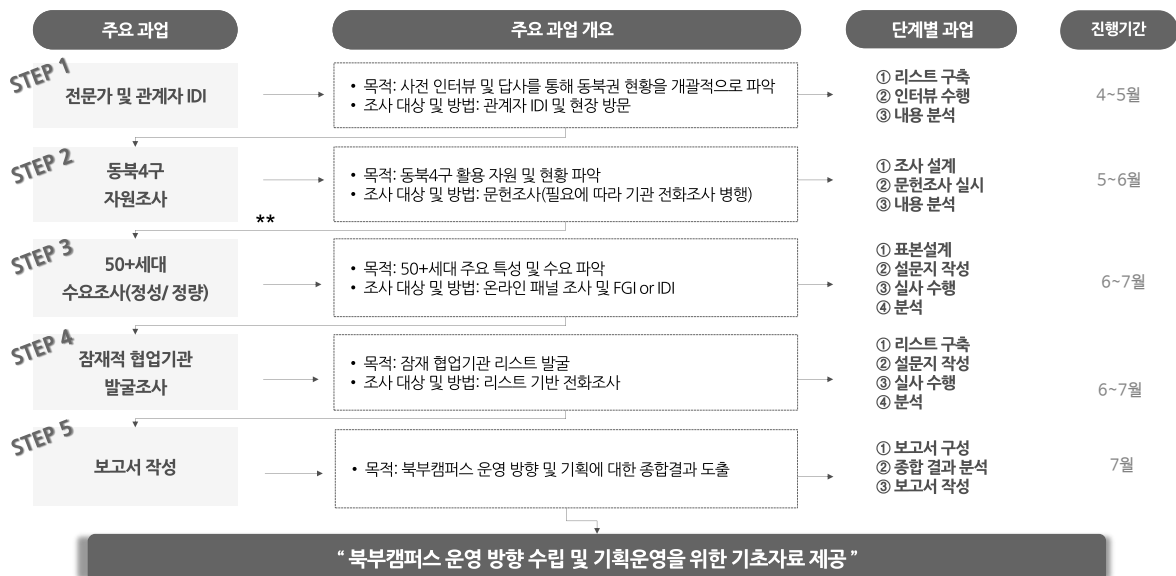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조사 및 자원조사 진행

- 1 서울시 동북권역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하고 필요한 교육, 일자리 수요, 사회참여활동 등 수요 파악
- 2 북부캠퍼스 인근의 관련 기관, 단체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 파악
- 3 창업센터 및 연수원 등 차별화된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수행 절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2. 전문가 및 관계자 IDI

- 북부권역의 환경 및 자원을 파악하고 개괄적인 수요를 도출

인터뷰 내용

내용

- **오프닝**
- 인터뷰 소개, Rapport/녹취 고지 및 동의
- **50플러스 세대의 욕구 이해**
- 50플러스 세대가 원하는 것의 우선순위, 50플러스 센터/재단의 필요성
- **북부권의 현황과 자원**
- 현황/특징, 거주민의 특징, 북부권의 자원, 북부 캠퍼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자원
- **북부캠퍼스 차별화 방안**
- 지역특성 고려한 차별화 방안, 기존 캠퍼스와의 차별점
- **세대융합형 일자리**
- 일자리에 대한 견해,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 **연수원 시설 활성화**
- 연수원 시설 활용 아이디어, 협업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 **클로징**
- 추가 제안 사항

인터뷰 대상 및 일시

연번	구분	소속	인터뷰 대상	추진 일정
1	재단	50플러스 재단	임** 팀장	5월 12일(화)
2	당사자	희망나눔세상	이** 전문위원	5월 12일(화)
3	재단	50플러스 재단	박** PM	5월 13일(수)
4	당사자	50+코리아	한** 회장	5월 14일(목)
5	전문가	삼육대학교	정** 박사	5월 14일(목)
6	당사자	서울창업진흥원	장** PM	5월 15일(금)
7	전문가	민주사회 정책연구원	이** 박사	5월 15일(금)
8	협업기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박** 센터장, 김** 팀장, 이** 사무국장, 김** PM	5월 22일(금)
9	재단	50플러스 재단	황** 팀장	6월 4일(목)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북부권 자원조사

- 문헌조사, 심층인터뷰를 통한 북부권 지역사회 이해 및 활용 가능 자원 현황 파악

활용가능 자원 현황

자연·역사/문화·시민 사회자원

- **자연자원**
- 동식물 자원, 청정 자연환경 및 자연 환경이 형성하는 경관
- **역사·문화 자원**
- 문화재, 향교, 서원, 사찰, 기념비, 고택, 성곽 등의 역사·문화 자원
- **시민사회 자원**
- 주요 중간지원기관

유관기관

- **평생학습관**
-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총 11개소
- **도서관**
- 총 27개소
- **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제외, 총 29개소
- **여성관련시설**
- 총 4개소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 총 16개소

북부권 지역사회의 이해

북부권의 이해

- 생활권의 특성
- 주민 특성
- 시민사회 특성
- 지역 니즈
- 북부권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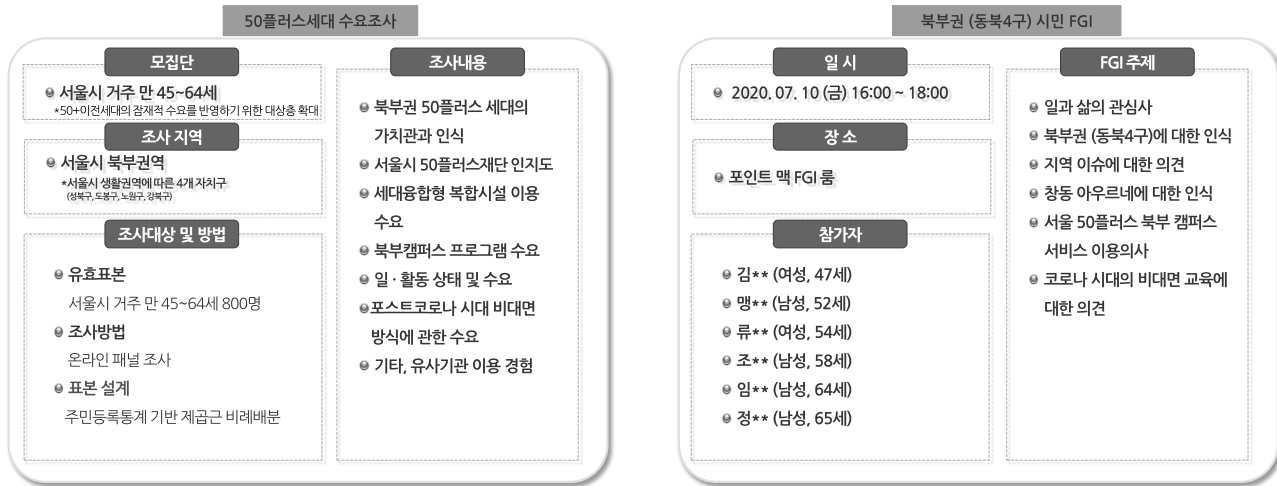
북부권의 핵심자원

- **자연 자원**
- 북부권 자연 특성, 자원활용 프로그램
- **시민사회 자원**
- 북부권 시민사회 특성, 활용가능 시민자원
- **역사·문화 자원**
- 북부권 역사·문화자원 특성
- **예술 자원**
- 북부권 예술 자원현황, 예술자원 개선점
- **대학 자원**
- 대학 자원 문제점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50플러스 세대 수요조사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조사 및 시민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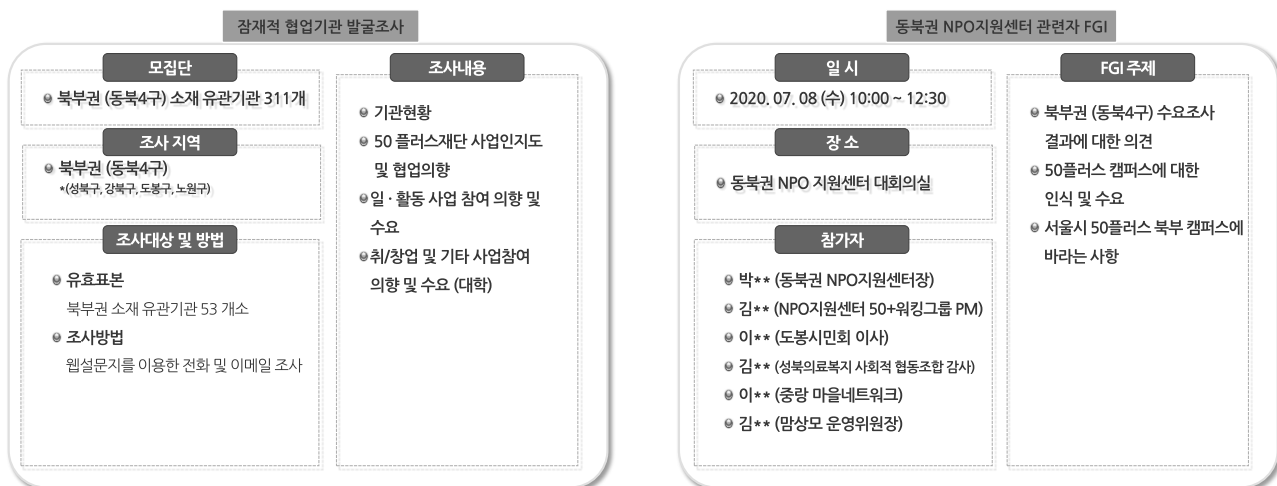


SOUTHERN POST

2.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잠재적 협업기관 발굴조사

● 잠재적 협업기관 발굴조사 및 동북권 NPO 지원센터 관련자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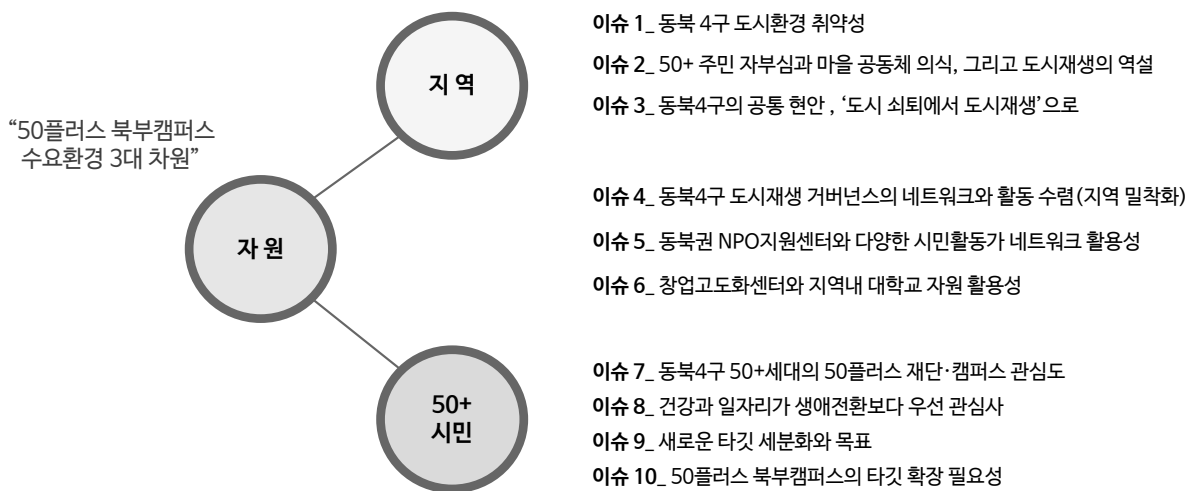


II. 종합 결론

서울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_ 10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 동북4구 “지역, 자원, 50+ 시민” 3대 차원의 수요환경 분석을 통해 50플러스 북부캠퍼스 해결과제 사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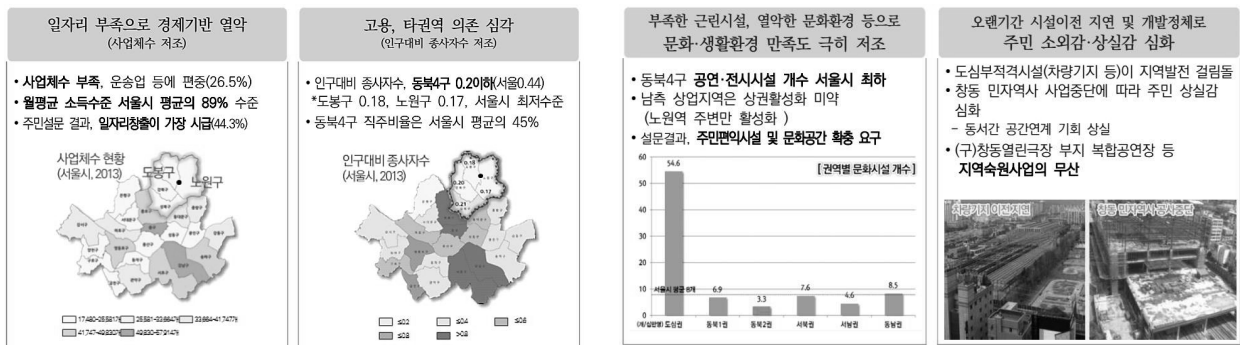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1_ 동북 4구 도시환경 취약성

● 동북4구의 경제기반과 문화·생활환경 취약

- 일자리. 경제적 활력이 서울시 최저수준으로 “깎박에 없는 도시”로, 사업체 수, 인구대비 종사자수 등 경제적 활력이 가장 낮고, 가구수 대비 지역경제기반, 지역자족 기반은 전국 263개 시. 군. 구중 최하위권 차지
- 이로 인해 동북4구 주민의 문화.생활환경 만족도 저조하고 대형 개발사업 정체로 주민 소외감·상실감이 심화
(자료 출처: 서울시 2017, ‘창동·상계 도시경계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1_ 동북 4구 도시환경 취약성

● 주변과의 접근성. 연계성 미약, 상습정체 등으로 “불편한 도시” & 인구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

-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등으로 인한 동서간 단절과 높은 직주 불균형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역
“4호선의 특징이 출근할 때 당고개역에서 출발하면 동대문까지 내리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상심이지요” (민선 6기 노원구청장)
- 최근 5년간, 인구 지속감소, 지역산업 10년간 정체, 2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가 등 지역쇠퇴 현상 심화
(자료 출처: 서울시 2017, ‘창동·상계 도시경계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불편한 도시”

- 직주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정체 심각 접근성 약화**
- 도심, 강남으로 장거리 출퇴근과 만성적인 교통난
 - 주민 설문결과, **교통환경 불만족 최다**(43%)
-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등으로 인한 동서 지역간 단절**
- 간선 교통은 남북축으로 발달, 동서간 연계 열악
 - 생활권의 공간적, 기능적 단절 심각(중랑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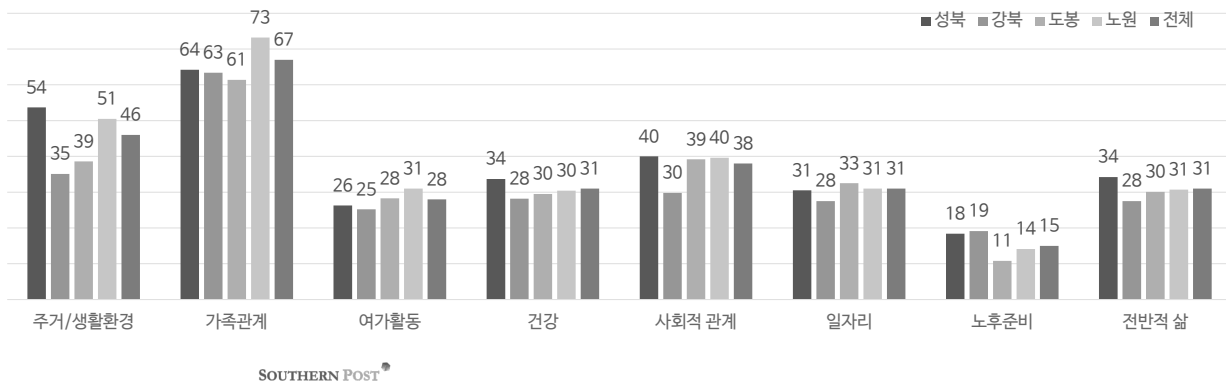
“쇠퇴하는 도시”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1_ 동북 4구 도시환경 취약성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31% Vs. 불만 18%, 중도 51% (50+수요 설문조사)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 '가족관계(67%)' 만족도가 가장 높고, '노후준비(15%)'가 가장 낮게 평가
- 동북4구별로는 성북구는 주거/생활환경, 건강, 사회적관계에서, 노원구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3구보다 높은 반면 강북구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노후준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3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2_ 동북 4구 50+ 주민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 동북4구 50+ 주민의 지역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 (동북4구 지역 전문가·활동가 IDI & FGI 결과)
- 지역 전문가·활동가 그룹에서는 동북4구 주민들의 지역 역사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공동체 의식도 강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외부집단 이주 증가로 연결, 중하위계층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염려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역사성, 자연환경, 자부심

#풀뿌리 지역공동체 의식

#도시재생, 부동산가격 상승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돈은 없지만 자부심은 강한 편이라 프라이드 빼면 시체다. 그러니 여기 와서 오스대기보다 함께 진실되게 하려고 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아이덴티티가 강한 편이다”

“동북권 조사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나온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천 우이천과 같은 하천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50+의 관점일 것이다. 아마 젊은 층은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동북권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었다. 공동체적인 결합이 강한 편이다”

“많은 지역을 접해봤지만 동북권 만큼 활동가들, 단체들이 많은 곳은 없다. 단순히 활동 단체 수로는 중로, 중구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동북권이 훨씬 더 강하다”

“동북권은 지역 시민사회가 상당히 강한데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외부집단의 이주가 늘고 있다. 외자인들이 늘어나고 그 동안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중하위 계층이 밀려날 때가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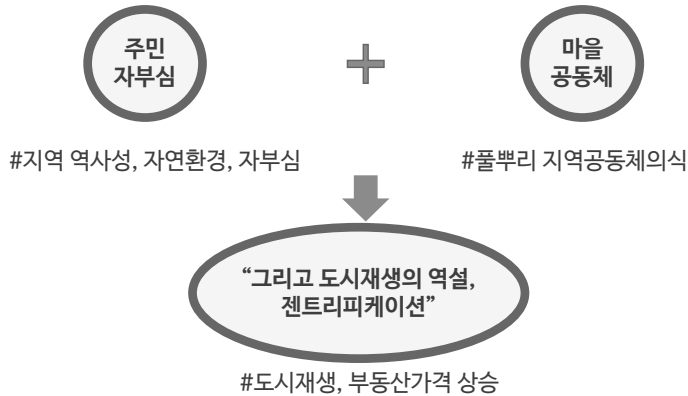
“아주 나쁘게 풀리면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 인원에 충도 신도시로 다른 지역들이 상당히 슬럼화가 된 거와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2_ 동북 4구 50+ 주민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 동북4구 50+ 주민의 지역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 (동북4구 지역 전문가·활동가 IDI & FGI 결과)
- 지역 전문가·활동가 그룹에서는 동북4구 주민들의 지역 역사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공동체 의식도 강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외부집단 이주 증가로 연결, 중하위계층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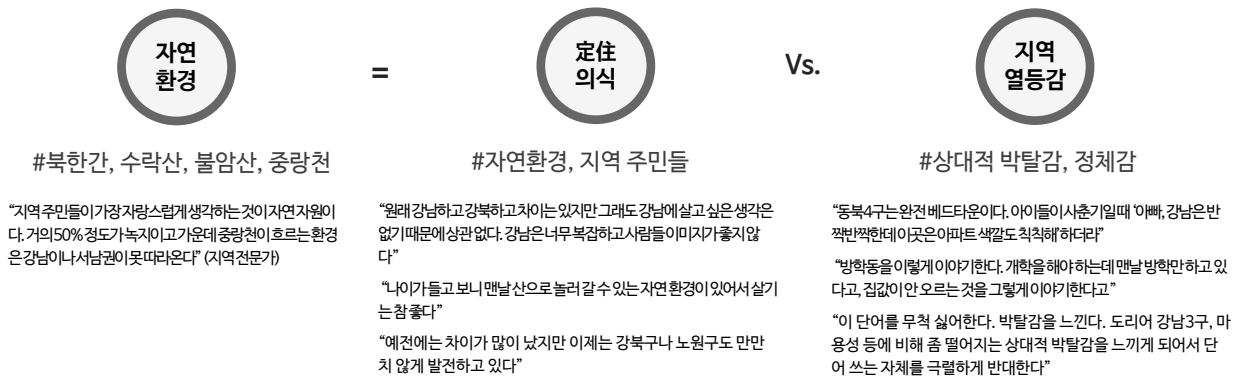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2_ 동북 4구 50+ 주민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정주(定住)의식 Vs. 타 지역 대비 열등감 공존 (50+수요자 FGI)
- 50+ 시민들은 동북4구가 강남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마을 공동체(사람들) 등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동시에 강남4구나 마용성에 비해 동북4구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체감으로 동북4구 용어 자체에 부정적 인식까지 보이는 '지역 열등감' 공존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2_ 동북 4구 50+ 주민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정주(定住)의식 Vs. 타 지역 대비 열등감 공존 (50+수요자 FGI)

- 50+ 시민들은 동북4구가 강남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마을 공동체(사람들) 등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동시에 강남4구나 마용성에 비해 동북4구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체감으로 동북4구 용어 자체에 부정적 인식까지 보이는 '지역 열등감' 공존



#북한강,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지역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자원이다. 거의 50% 정도가 녹지이고 가운데 중랑천이 흐르는 환경은 강남이나 서남권이 못따라온다" (지역전문가)

=



#자연환경, 지역 주민들

"원래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강남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강남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지가 좋지 않다"

"나이가 들고 보니 맨날 산으로 놀러갈 수 있는 자연환경이 있어서 살기는 참 좋다"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강북구나 노원구도 만만치 않게 발전하고 있다"

Vs.



#상대적 박탈감, 정체감

"동북4구는 완전 베타타운이다.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야빠, 강남은 반짝반짝한데 이곳은 아파트 색깔도 칙칙해 하더라"

"방학등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개학을 해야 하는데 맨날 방학만 하고 있다고,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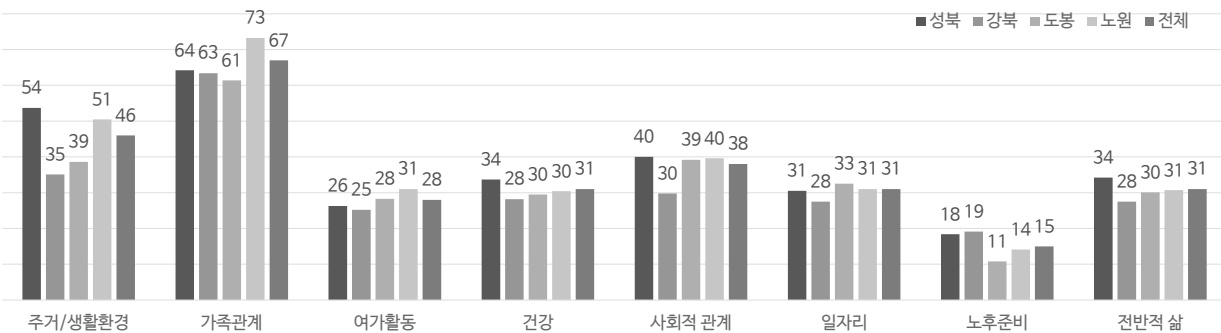
"이 단어를 무척 싫어한다. 박탈감을 느낀다. 도리어 강남3구, 마용성 등에 비해 좀 떨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서 단어 쓰는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한다"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2_ 동북 4구 50+ 주민 자부심과 마을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시재생의 역할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31% Vs. 불만 18%, 중도 51% (50+수요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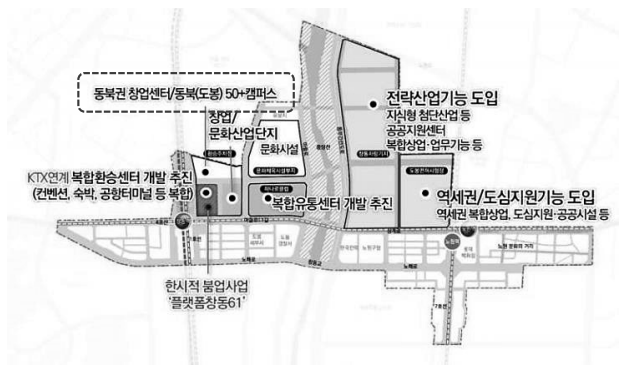
- 동북4구 50+ 시민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에서 '가족관계(67%)' 만족도가 가장 높고, '노후준비(15%)'가 가장 낮게 평가
- 동북4구별로는 성북구는 주거/생활환경, 건강, 사회적관계에서, 노원구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3구보다 높은 반면 강북구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노후준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3구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3_ 동북4구 공통 현안, ‘도시 쇠퇴에서 도시재생으로’

- 동북4구 도시재생 핵심사업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
- 서울시 생활권역 중 도시 쇠퇴율이 높은 반면 경제기반과 문화생활 인프라는 취약한 동북4구 현안 이슈는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로 집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4구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동 추진
- 특히 동북4구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선도사업으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3_ 동북4구 공통 현안, ‘도시 쇠퇴에서 도시재생으로’

- 동북4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민·관·학 협치 네트워크 구축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동북 4구 지자체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거버넌스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2015년 개소, 지역사회와 시민의 민관 협치 구축을 통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함께 동북4구의 72개 도시재생 실행과제 추진 지원 활동
- 도시재생 관련 다양한 민·관·학 협업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동북4구의 지역사회 자존심 회복과 공동체 의식 강화
- 동북4구는 서울시의 다른 권역에 비해 도시경쟁력 취약성으로 강남권역이나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마·용·성 지역에 비해 지역 열등감이 강한 반면, 50+시민들을 중심으로 녹지 50%의 자연환경, 지역 역사성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의식, 풀뿌리 지역 공동체적 결집력이 강한 시민의식이 공존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문화예술”을 테마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 실행, 도시재생 관련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1) 지역환경

이슈 3_ 동북4구 공통 현안, ‘도시 쇠퇴에서 도시재생으로’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문화예술’ 테마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활동 진행

-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 ‘문화예술로 진행하다’, 민관협력 문화예술 인재양성프로그램 ‘청소년크리에이티브스쿨, 문화예술 청년창업스쿨, 스테이지 아트스쿨’, 시민예술프로그램 ‘뮤직페스타,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동북4구 아트-뮤직 프리마켓 ‘몽치장’, 동북4구 문화재단 교류데이 ‘ENFP’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
- 50플러스 인생 다모작 아트프로젝트 “동북4구 다다이스트되기”, “50플러스 뿌리내림 포럼” 등 50+ 대상 도시재생 프로그램 진행
- 지역대학 도시재생 협력사업 ‘사이사이 프로젝트’, 동북4구 마을여행 ‘땀땀이, 갭스텝’과 지역문제 해결 ‘동북4구 2주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4_ 북부캠퍼스의 동북4구 “지역 밀착화” 강화 필요 → 동북4구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 기존 50플러스캠퍼스 소재지 구청과 협업 소통 부재, 북부캠퍼스의 차별화된 지역 밀착형 모델 개발 필요

- 기존 서·중·남부 캠퍼스의 경우 소재지 구청과 협력관계 미흡하거나 부재의 상황으로 평가(동북4구 지역 전문가 ID)
- 북부캠퍼스는 동북4구 지자체, 특히 도봉구와 성공적인 협력·상생 강화, 이를 통해 50+의 지역 필요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회안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의 지역 밀착화 강화 필요



#지역 필요인력 선순환, 지역특화



#지자체 협업 소통 부재

북부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와 차별성을 가지려면 지역 밀착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발굴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 양성하고 지역 사회에 환류하고 일과 활동을 통해 뭔가 의미를 찾고 그 활동이 발전적으로 조직화해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업해서 인력 창출을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쪽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건 어떨까 싶다”

동북4구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이 동북4구에 있는 각 구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지역 밀착형으로 새로운 모델을 북부 캠퍼스 운영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떻게 역량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50+들을 발굴해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육구과 니즈에 맞게끔 투입시킬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전문가)

“동북 4구 구청 관계자들과 북부 캠퍼스가 협의를 해서 지역 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그곳에서 양성된 인력을 NPO 커뮤니티단으로 조직해서 캠퍼스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지원금과 공간 활용, 법인화 과정 지원금도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 (지역 전문가)

“기존에 캠퍼스가 있는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가 캠퍼스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한 없다. 북부 캠퍼스만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캠퍼스들이 자치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없다고 들었다. 중요한 인프라가 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단체와 서로 협력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이번에 북부 캠퍼스를 계기로 재단 차원에서 도봉구와 서로 긴밀한 협력 하에 시너지를 내고 원원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TF가 생기면 한두 달 후에 반드시 인사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알고 지내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지역 전문가)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4_ 북부캠퍼스의 동북4구 “지역 밀착성” 강화 필요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와 활동 수렴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민·관·학 네트워크 파악, 협업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강화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기존 민·관·학 네트워크와 사업·프로그램 내용 파악, 협업 프로그램 개발과 초기 북부캠퍼스 연락처 위한 활용 방안 검토
“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동북권 NPO지원센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명과 야미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노력들을 이미 선행,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했던 기관들인데 실제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실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전문가)
- 또한 동북4구 유관부서, 기존 (노원, 성북)50플러스센터 협업과 역할 분담,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운영계획 방향성 수립
“캠퍼스와 센터가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지 프로세스나 콘텐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자치구 네트워크들은 우리 동네에 50+ 센터를 세워서 그곳을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캠퍼스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센터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지역 내의 다른 조직들이 그런 교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전문가)



I·SEÖUL·U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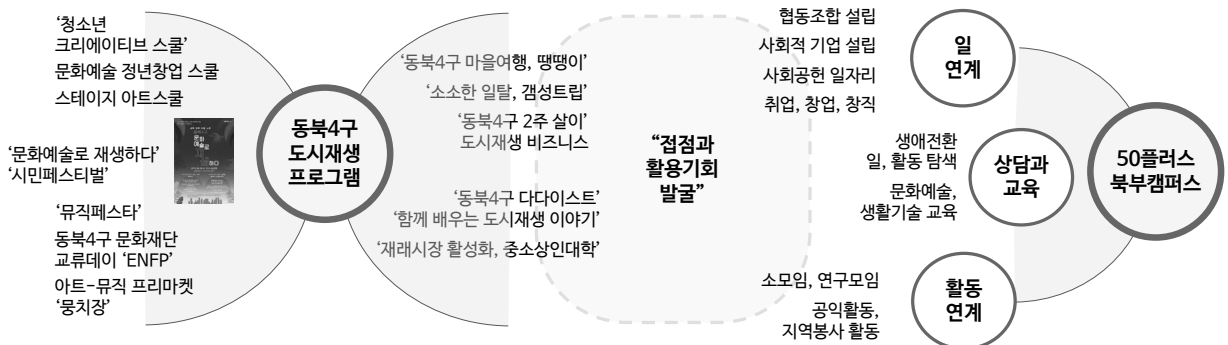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4_ 북부캠퍼스의 동북4구 “지역 밀착성” 강화 필요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와 활동 수렴

● 50+당사자의 일과 활동을 통한 동북4구 도시재생 참여 지원 역할로 50플러스 북부캠퍼스의 “지역 밀착성” 강화 필요

- 북부캠퍼스가 동북4구 50+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4구 공통 현안인 ‘도시재생’에서 50+ 당사자들의 일과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 밀착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협업 프로그램 점검과 활용기회 발굴, 50플러스캠퍼스 사업영역으로 수렴할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 필요
특히 북부캠퍼스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된 ‘동북4구 다다이스트 되기’ 등을 중심으로 50플러스캠퍼스에서 수렴할 수 있는 점검 기회 적극 발굴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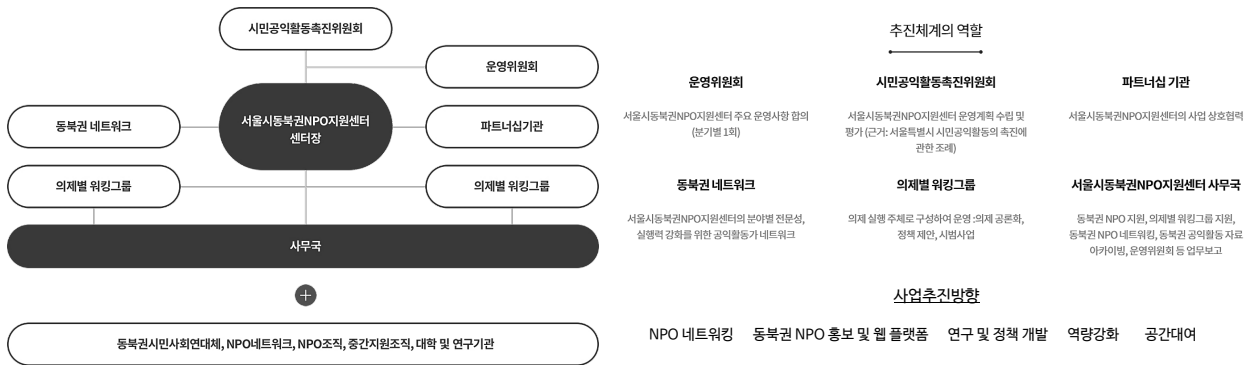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8년 설립,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이 수탁 운영
- 조직도와 추진체계, 사업 (사무국 5명)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4구는 지역 시민사회가 다른 권역에 비해 강한 곳으로 실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함

- 서울시 권역 중에서 동북권 NPO지원센터 가장 먼저 설립, 이를 중심으로 1300여개의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활동가들이 많음 - 동북권 워킹그룹은 크게 젠더, 50플러스, 환경, 느린 학습자의 4개 조직이 있으며, 동북4구에는 각 구마다 2명씩으로 구성
- 주요 중간지원조직/기관으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풀포럼, 청년공간 무중력시대(도봉, 성북), 동북권역 마을배움터(품), 동북4구 공급급식센터, 동북4구 도시농업네트워크울시 동북4구 시의원 연구모임 '사구멍치' 등의 민간 단체 활동
- 동북4구에서 마을자치지원센터(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동북4구 지역활동가 커뮤니티에 대한 전문가 인식 (지역전문가 ID1)

#지역 진보 운동가 파워

“여기가 옛날 김근태 의원 지역구다. 그리고 시의원 등이 엄청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주 소통을 하고 진정성을 보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동으로 같이 이름도 좀 실어주고 같이 하면 진짜 열심히 뛰어준다”

#대규모 지역시민 사회, 단체

“이쪽이 옛날부터 좌파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근간이 되어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이 1300여 곳이 넘는다. 이 사람들 파워가 대단해서 구청장이나 박원순 시장과 직접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전국의 시민 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이 멤버들이 이쪽에 넘쳐난다. 잘못하면 뒷세를 부리는 것이 되기 쉽지만, 하여튼 이곳이 이런 게 세다”

#50+, 여성 활동가 최다 지역

“많은 지역을 접해봤지만 동북권 만큼 활동가들, 단체들이 많은 곳은 없다. 단순히 활동 단체 수로는 중로, 중구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동북권이 훨씬 더 강하다”, “동북권은 지역 시민사회가 상당히 강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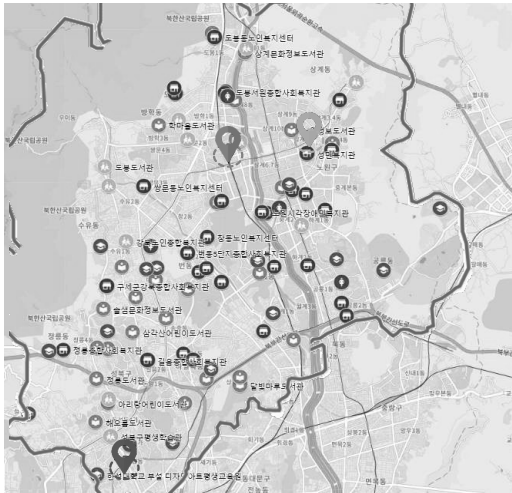
“동북4구 마을배움터는 동북4구 청소년 교육활동하는 곳이고, 동북4구 공급급식센터가 동북4구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4구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전국의 도시농업을 리드하고 있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서울시 평균보다도 50+ 포함해서 고령자 비율이 더 높다. 50+중에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주부들이 시민 활동이나 마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엄청 많다” (지역 전문가)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4구의 유관기관 배치도



- 평생학습관, 총 11개소
- 도서관, 총 27개소
- 복지관, 총 29개소
- 여성관련시설, 총 4개소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총 16개소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50플러스 북부캠퍼스 협업에 대한 기대감 높음

- 동북권 NPO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역활동가, 지역시민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캠퍼스 입주 후 협업을 통해 확장성이 높은 사업활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수준

동북4구 지역활동가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지역활동가 IDI)

#북부캠퍼스
협업 기대감

“옛날로 따지면 마을밖, 지금 시민협력플랫폼 협치 이런 식의 사업들처럼 이미 상당 부분 구마다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권역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는 못 미치고 있다. 어떤 명과 암이 있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50+ 북부 캠퍼스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잘 엮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북부캠퍼스가 들어온 후에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융복합센터에 입주를 하면 시민 사회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특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차피 일자리가 공동의 숙제라면 여기는 그런 식의 특화도 가능할 수 있겠다”

#입주기관
운영위원회

“프로그램을 세팅하기 전에 아우르네 입주기관의 공론장을 통한 소통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현장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소통하고 체크하고 검토해서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좋겠다”
 “운영위원회를 가동한다면 현장에서 부딪치고 진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야 한다” (지역 활동가)

#아우르네 광장
토론회(공론의 장)

“지역 의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획할 수 있는 공론 모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이슈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잘알 듯이 당사자그룹들이 스스로 모여서 토론회할 수 있는 당사자 그룹들의 토론회장을 만들었으면”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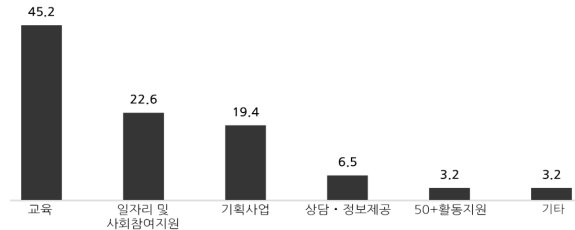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권 잠재협업기관 중 50플러스 북부캠퍼스와 협업의사가 있는 기관은 58% (잠재적 협업기관 발굴 설문조사)
- 동북권 협업기관 발굴 설문조사에 응답한 잠재적 협업기관(N=53)중에서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알고 있는 기관은 79%, 협업의향은 58%이며, 협업의향 사업은 '교육'과 '일자리 사회참여 지원, 기획사업' 등의 순으로 응답
- 50+세대의 일자리 제공 의향은 77%로,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채용 66%, 별도 재정지원이 없어도 채용 11% (→협업 및 일자리 제공 의향 기관 리스트 별도 제출)
- 북부캠퍼스와 협업의향이 없는 이유(N=22)로는, '사업 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움(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제공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전문성 필요, 50+ 세대의 적응력 부족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외부인 채용 어려움, 50플러스재단/캠퍼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언급됨

동북4구 잠재적 협업 기관의 50플러스 재단 인지도와 북부캠퍼스 협업의향

기관 구분 (%)	사례수	인지도	협업의향	별도 재정지원 없어도 채용	별도재정 지원 채용
전 체	(53)	60	59	11	66
비영리민간단체	(28)	64	54	7	64
예비사회적기업	(9)	67	89	11	78
사회적기업	(10)	60	50	60	60
대학	(6)	33	50	-	-

협업의향 사업 (N=31)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이슈 5_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 네트워크 활용성

- 동북권 공익활동 단체의 일자리 조건은 열악한 상황 (2017년 서울시, 동북권 공익활동가 실태조사/ N=120)
- 동북권 공익활동가(N=120) 중 상근직은 45%, 정규직은 36% 수준, 월 급여는 50만원 이하 20% 51~100만원 이하 15%, 100~150만원 17%로 과반수가 150만원 이하로 급여에 대해 만족하는 활동가는 17%에 불과한 수준
- 이는 대부분의 NPO 재정이 회비(31%)나 지원사업(46%)에 의존하고 있고 수익,재정 사업은 10%에 불과한 수준이고, 3인 이하 단체가 24% 3~5인 27%로 5인 이하 단체가 51%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75%가 활동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동북권 NPO의 협력이 북부캠퍼스의 50+ 일과 활동 성과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50+ 세대의 일과 활동에서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공익활동단체 네트워크 협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기관의 조건이나 인력충원 역량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협업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6_ 창업고도화센터와 지역내 대학교 자원 활용성

- **세대융합형, 혹은 협업에 대한 긍·부정 인식 병존** (창업고도화센터 관련자 및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I)
- 세대간 협업에 관해서는 해당 전문가와 50플러스 재단 관계자의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병존
- 부정적인 견해는 50+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가르치려는 자세로 인해 갈등 유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 언급

세대융합, 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역/창업전문가 & 50플러스재단 관계자 IDI)

#세대간 갈등 유발
50+ 잔소리,
기대 역할 부족

“말이 좋아 세대융합형이지 웬만하면 세대융합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임의로 공간을 섞어 놓으면 갈등만 유발할 수 있고, 나중에는 청년들이 밀려날 거라고 많이 한다. 청년들은 자꾸 부딪히는 게 싫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빠지는 위험성도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전문가)

#청년 창업가
50+ 역할 무관심

“예전에는 퇴직자들의 삶의 경험을 전해주는 의미에서 멘토, 멘티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많았다. 요즘은 중장년층이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 특히 멘토, 멘티 방식은 아니다. 중장년층은 이런 저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청년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50플러스재단 관계자)

“아직은 체계가 없는 스타트업들을 대기업 시스템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여기고, 약간 질책이나 압박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타트업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나 연결 정도를 기대하는데 잔소리만 듣고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갈등만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창업센터 관계자)

“청년 관련 단체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 청년들은 50플러스 세대와 만남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저것 단발성으로 많이 해봤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한다” “이런 저런 시도들은 많이 했는데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끝났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니즈는 없는 것 같다. 청년들은 갈등이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당장 본인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과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일까지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50플러스재단 관계자)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2) 자원환경

이슈 6_ 창업고도화센터와 지역내 대학교 자원 활용성

- **세대융합형 협업에 대한 긍·부정 인식 병존** (창업고도화센터 관련자 및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I)
- 긍정적인 견해는 서로의 니즈에 대해 매칭이 잘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준비를 거쳐서 청년층이 원하는 부분을 50+ 세대가 경험과 인맥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음

세대융합, 협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역/창업전문가 & 50플러스재단 관계자 IDI)

#50+ 경력과 인맥
청년층 네트워크
연결과 확장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단 개념으로 대기업에서 은퇴한 50+세대를 스타트업에 매칭해줬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트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건 거래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이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하나의 큰 장벽인데 그 부분에서 잘 매칭이 되어서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나면 그 부분의 니즈도 좀 약화되는 편이다” (창업센터 관계자)

#상호 니즈 충족형
매칭

“매칭이 포인트다. 서로의 니즈가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서 스타트업에 작은 성과 하나라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성공이다. 문제는 아무리 도와 줄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었다” (창업센터 관계자)

“예를 들면 디지털 업무는 청년들이 잘 하는데 중장년 아이টে이 있어서 청년층이 붙어서 그것을 세팅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협업을 해 주는 방식으로 세대융합형 사업을 할 수 있다” (50플러스재단 관계자)

SOUTHERN POST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이슈 6_ 창업고도화센터와 지역내 대학교 자원 활용성

● **결론적으로 세대융합형 협업의 성공은 50+ 당사자의 적극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창업고도화센터 관련자 및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

- 무엇보다도 청년 창업자를 돕고자 하는 50+ 멘토나 컨설턴트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성찰하고 젊은 창업자를 돕기 위한 변화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함
- 바로 멘토링이나 컨설팅 전에 상호이해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운영, 라포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과정 운영 필요.
- 북부캠퍼스와 창업고도화센터가 함께 운영되면 50플러스에게 공간적으로나 프로그램 참가 기회의 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상호 기대하고 있음

세대융합, 협업 방식에 대한 의견 (지역/창업 전문가 &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

#50+ 당사자의
청년층 니즈
충족형으로 변화하기

“사회적기업에 가서 일주일에 3일씩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현실과 이상, 또 사회적 경제의 진짜 환경.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의 인식. 그들이 이런 은퇴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효용성. 또 하나 50+ 당사자가 과연 한 12강, 16강 짜리 교육 한번 덜렁 들고 도와준다고 갔을 때 과연 그들이 다 내려놓고 정말로 청소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가? 부딪혀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못 내려 놓기도 하고 늘 타성에 젖어서 뭔가 보고만 받으려고 하고 지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것을 당사자 연구의 주제로 삼았어요” (지역 전문가)

#세대융합형 교육,
프린팅/인큐베이팅 등의
적응 조정과정 필요

“변화 훈련을 하고 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다. '도와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대접해?' 하는 감정에 빠질 수 있고, 스타트업에서는 도와주겠다고 와서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창업센터 관계자)

#50+ 당사자
참여 확대 기회

“뭔가 세대융합형 강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는 은퇴하신 전문50+ 세대들이 경륜과 경험과 네트워크는 많은데 머리가 쇠해서 아이디어가 없고. 청년은 반대로 경륜, 경험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강좌 위주로 풀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역 전문가)

“스타트업과 50플러스가 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리 인큐베이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운영되면 좋겠다” (창업센터 관계자)

“창업 허브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50+재단도 교육하는 곳이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시니어들이 현장에서 보고 관심을 가져서 재능 기부하려는 풀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관심이 더 커지면 글로벌 경험을 가진 그런 시니어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창업센터 관계자)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2) 자원환경

이슈 6_ 창업고도화센터와 지역내 대학교 자원 활용성

● **대학교의 협업 자원 활용은 후순위 검토**(창업고도화센터 관련자 및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

- 대학교는 대부분 창업과정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50+세대의 이용 기회도 만들 수 있지만, 50플러스 재단이나 북부캠퍼스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 확보가 가능한지 내부 검토 필요
- 대학교의 자원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대학교가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고, 대학생도 졸업 후에는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대체로 지역 전문가나 활동가는 대학교 협업자원 활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

동북권 대학과의 협업에 대한 인식 (지역/창업 전문가 & 50플러스 재단 관계자 ID)

전국 최다의
대학인재기술자원 보유

15개 종합대학 입지,
연간 3만명 졸업
*서울시내 대학 특화권의 25%
보유, 총동일대 연구소 밀집



“동북 4구에는 대학교가 참 많다. 그 대학교에 다 창업 과정이 있다.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운영에 있다. 그냥 강좌 만들어 놓고 톡 던져서 모집이나 하는 게 아니고 영입이 필요하다.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재단이 되었든 캠퍼스가 되었든 발품을 팔아가면서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 전문가)

“대학이 지역 사회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북권 사업을 하면서 동북권의 대학들을 묶어서 거버넌스 만드는 노력들을 했었다. 교육청에서도 했었다. 그런데 대학은 동네에 별 관심이 없다.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뭐 했다고 하는 게 그냥 위탁 사업 받아서 빨대 꽂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역 전문가)

“대학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대학 프로그램도 시니어들이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MOU가 가능하다. 캠퍼스나 재단에서 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대학과 잘 얘기해서 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우리가 그 강좌에 참여해서 양성되면 거기서 양성된 인력들을 그 대학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을 하면 나올 것 같다. 기왕 여기에 잠재돼 있는 이런 자원들, 이게 물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 동북권 내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발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전문가)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3) 50+시민 환경

이슈 7_ 동북4구 50+세대의 50플러스 재단·캠퍼스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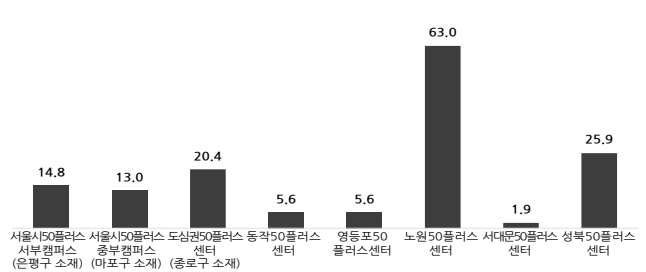
● 동북권 50+세대의 재단 인지도는 29%, 이용경험은 7% 수준 (동북권 50+세대 수요설문조사)

- 동북권 50+세대의 재단 인지도는 50+센터가 있는 성북과 노원이 강북과 도봉에 비해 소폭 높은 경향을 보임
- 반면 재단 이용경험은 도봉과 노원에서 강북과 성북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용기관으로는 노원 50+센터가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북(26%)과 도심권(20%), 동작, 영등포, 서대문 등 50+센터 이용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용경험 서비스로는 교육지원 46%, 상담/정보 제공 35%, 일 연계 28%, 활동 연계 24% 등의 순으로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음
- 북부캠퍼스 개관 인지도는 11%, 향후 방문의사는 66%로 성북과 강북지역의 방문 의향이 소폭 낮은 경향을 보임

동북권 50+세대 재단·북부캠퍼스 인지도/이용경험/이용의향

동북4구 구분 (%)	재단 인지도 (N=800)	재단 이용경험 (N=233)	북부캠퍼스 개관인지도 (N=800)	북부캠퍼스 방문의향 (N=800)
전 체	29	23(7)	11	66
성북구	31	17	9	59
강북구	27	14	11	64
도봉구	26	27	10	69
노원구	30	30	12	69

50플러스재단 이용경험 기관(N=54/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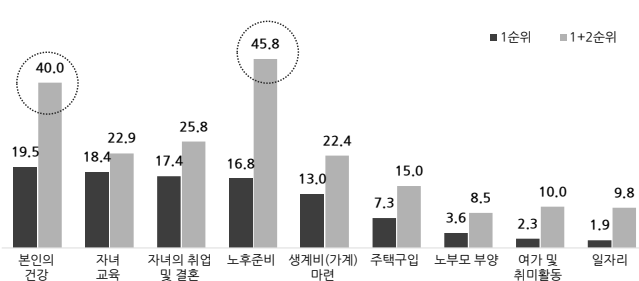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3) 50+시민 환경

이슈 8_ 건강과 일자리가 생애전환보다 우선 관심사

● 동북권 50+세대의 현재 관심사는 노후준비와 건강 우선

- 50+세대 수요조사에서 40대 후반은 자녀교육과 생계비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50~54세는 노후준비, 자녀취업/결혼, 자녀교육, 건강 등의 관심도가 큰 차이 없이 분산되어 있음
- 55~59세는 50대 초반 여러 관심사로 분산된 것에 비해 자녀취업/결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4세는 건강에 관심 집중 이후 노후 준비로 관심사 이동 경향

50+ 세대 일상적 관심사(N=800, %)



연령	40~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관심사	자녀교육 생계비 마련	노후준비 자녀취업/결혼 자녀교육	자녀취업/결혼 노후준비	건강 자녀취업/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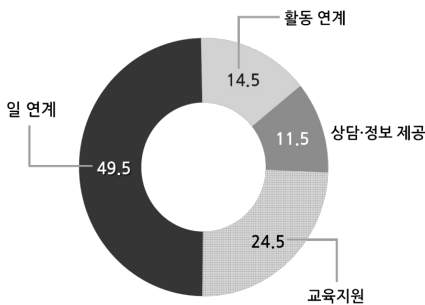
1. 동북4구 수요환경 이슈 _ 3) 50+시민 환경

이슈 8_ 건강과 일자리가 생애전환보다 우선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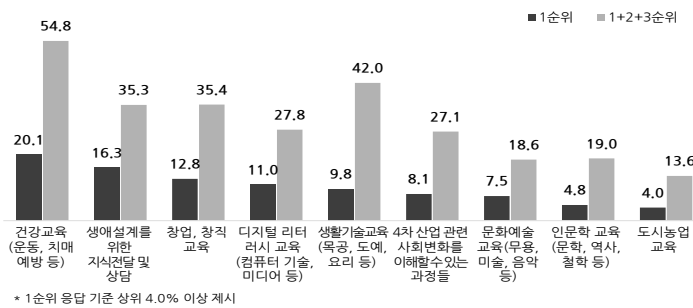
● 동북권 50+세대의 현재 관심사는 노후준비와 건강 우선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참여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일 연계’ 49.5%로 가장 높고, ‘교육지원’ 24.5%, ‘활동 연계’ 14.5% 등의 순
- 참여 희망교육(종합순위 기준)으로는 ‘건강교육’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생애기술교육’ (42.0%), ‘창업, 창직 교육’(35.4%) 등의 순

북부캠퍼스 참여 희망 프로그램(N=800, %)



북부캠퍼스 참여 희망 교육프로그램(N=800, %)



SOUTHERN POST

2. 북부캠퍼스 수요요구 분석 _ 1) 연수시설에 대한 요구

(1) 국내 연수시설 운영 사례

● 일반적인 공공기관 연수시설(강의동+숙박동+휴게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사례 유형화

-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유형**
기본적으로 연수시설 본래의 목적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교유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매체의 다원화 등 교육연수시설로서 경쟁력 강화하는 유형, 해당 기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기관의 연수시설로 활용
- **외부 개방, 외부 시설 활용, 타기관과 시설 공유 유형**
현재 대부분의 기관 연수시설은 외부에 시설을 개방하고는 있으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공간이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 시설을 대여, 개방하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유형, 여건 변화나 프로그램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필요시 우선적으로 외부 시설 이용하거나 타 기관 시설 활용 등 예산 절감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행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프로그램, 강사진 공유 등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 유형**
유관기관 간 공동 필요시설이나 프로그램 공유, 중복 요소 감축과 예산절감, 관련 정보 및 인력 공유를 통해 연수시설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원활한 소통 기반 필요
-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유형 유형**
지방 이전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 방안 마련,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방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유형
더 나아가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SOUTHERN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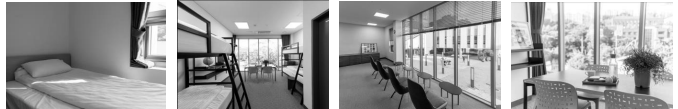
2. 북부캠퍼스 수요요구 분석_ 1) 연수시설에 대한 요구

(2) 서울시 혁신파크 연수동(SOCIAL STITCH) 운영 사례

● 다양한 혁신가들의 실험과 휴식이 있는 소셜 커뮤니티 호스텔로 운영

- 의미미한 경험이 일어나는 숙박·연수·커뮤니티 공간으로, 소셜 섹터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파트너와 함께 즐거운 공간 실험으로 새로운 경험 제공

휴식을 위한 객실/편의 공간
 1인실, 2인실(트윈/2층침대), 4인실, 10인실(총 21객실)
 3F room 301~310
 2F room 201~211
 1F 공용키친 - 냉장고, 세탁실, 세미나실



소셜 커뮤니티 실험공간 제안
 3F 커뮤니티 스페이스 (community space) : 클래스, 모임
 2F 리프레시존(refresh zone) : 전시, 체험, 공연
 1F 스티치 라운지(stitch lounge) : 토크, 강연, 프로그램



SOUTHERN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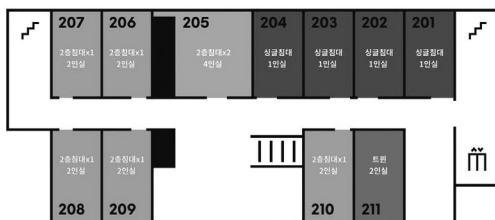
2. 북부캠퍼스 수요요구 분석_ 1) 연수시설에 대한 요구

(2) 서울시 혁신파크 연수동(SOCIAL STITCH)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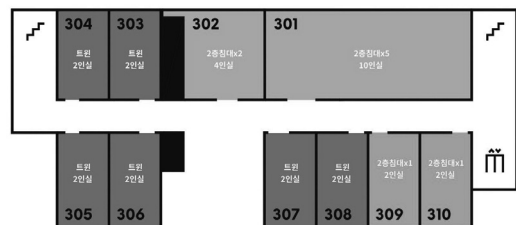
● 다양한 혁신가들의 실험과 휴식이 있는 소셜 커뮤니티 호스텔로 운영

- 소셜스티치는 서울혁신파크와 연관된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숙박·연수·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호스텔
- 소셜스티치 이용객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예약 신청서와 함께 프로그램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계획서 양식, 분량 자유)
 - 1)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프로그램 진행 주체가 혁신파크 입주단체일 시 행사 관계자도 포함)
 - 2) 서울혁신센터 협력기관
 - 3) 소셜스티치 연계프로그램 (관계자 및 참가자 등)
 - 4) 일반 이용객 (서울혁신파크 공간대관, 입주단체와 협업 진행 시 연수/숙박 목적)

2F - Room 201-211



3F - Room 301-310



SOUTHERN POST

2. 북부캠퍼스 수요요구 분석_ 1) 연수시설에 대한 요구

(2) 서울시 혁신파크 연수동(SOCIAL STITCH) 운영 사례

- 소셜스티치는 명확한 테마로 혁신파크 관련 이용자 타겟에 집중한 개방형 연수지원시설로 포지셔닝

#명확한 타겟

- 1)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프로그램 진행 주체가 혁신파크 입주단체일 시 행사 관계자도 포함)
- 2) 서울혁신센터 협력기관
- 3) 소셜스티치 연계프로그램 (관계자 및 참가자 등)
- 4) 일반 이용객
(서울혁신파크 공간대관, 입주단체와 협업 진행 시 연수/숙박 목적)

#차별적인 테마

다양한 혁신가들의
실험과 휴식이 있는
소셜 커뮤니티 호텔

#타겟과 테마에
적합한 zoning과
컨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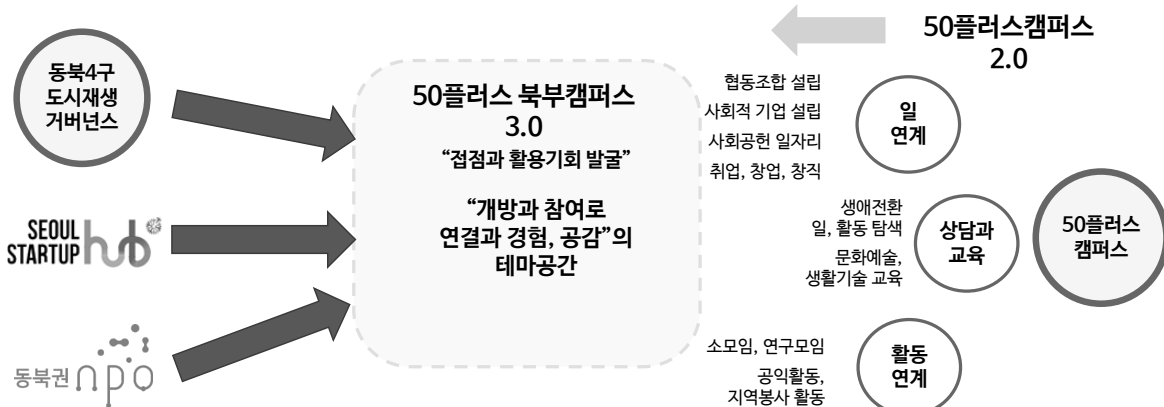


SOUTHERN POST

2. 북부캠퍼스 수요요구 분석_ 1) 연수시설에 대한 요구

(3) 북부캠퍼스 연수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방향성

- 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지역 밀착형의 고도화된 협업 네트워크와 50+당사자의“참여와 연결, 공유”를 위한 개방형 테마 공간으로 포지셔닝 (북부캠퍼스의 기본 운영방향과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테마 공간)



SOUTHERN POST

III. 제언

서울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_ 41

제언_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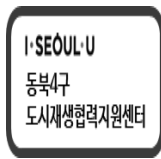
● 과제 1 :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 수렴을 통한 지역 밀착성 강화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민간학네트워크 파악, 협업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강화 방안 마련

			
한양에서 답을 찾다	꾸민이 주인되는 행정	사람을 향한 도시-아은 도봉	자연과 문화속으로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도시재생과 주민자치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신경제일자리과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성북50플러스센터 Seongbuk 50 Plus Center			노원50플러스센터 Nowon 50 Plus Center



			
성북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노원예술회관·어린이극장
			
PLATFORM CHANGDONG 61	인터파크 사이더	VITAMIN CENTER	
	동북4구 마을여행 네트워크 동북4구 프리마켓, “응치장”, ‘시장가장’ ‘언더브릿지아트숍’ 도시재생 협동조합 ‘생동’ 동북4구 다다이스트, ‘예술1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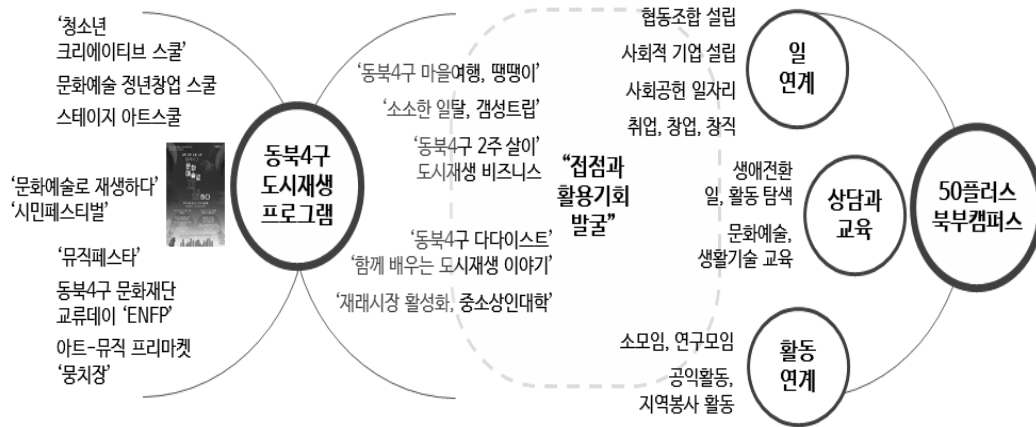
제언_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 방향성

●과제 1 :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 수렴을 통한 지역 밀착성 강화

• 동북4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협업 프로그램 점점과 활용기회 발굴, 북부캠퍼스와 협력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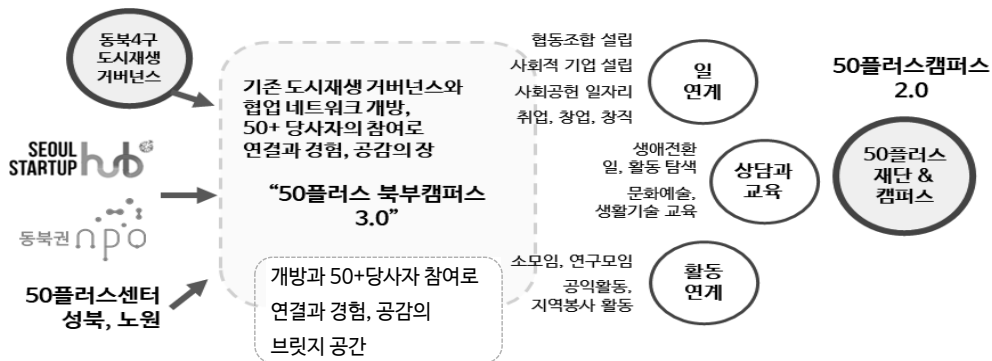


제언_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 방향성

●과제 2 :

협업 네트워크 고도화

• 기존 50플러스캠퍼스 push형 공유에서 지역현안과 당사자 중심 50플러스캠퍼스



제언_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 방향성

● 과제 3 :

**북부권 50+ 타깃 확장과
새로운 네트워크 개발**

- 현재 소득활동 일자리 지속, 경쟁력 향상 지원 방향, 북부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타깃 확대 (예, 재래시장 상인회, 창동역 상인연합, 상인협동조합 등 50+자영상공인 소점포 성공사례 연구회 등)

40-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자녀교육 생계비 마련	노후준비 자녀취업/결혼 자녀교육	자녀취업/결혼 노후준비	건강 자녀취업/결혼
별도 전략 50+에션 제외	1st. 연장 & 레벨업	생애전환 준비	2nd.stage

감사합니다!

「동북권50+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50+워킹그룹 김미희 PM

「동북권50+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50+워킹그룹 김미희 PM

동북권50+워킹그룹이 「동북권 50+ 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과 50+당사자들의 성장 가능성

50+는

50~64세까지의 연령대이며 100세 시대에서 현재 연령에서 향후 50년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미래 삶의 주인공이다. 현재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야로의 꿈꾸었던 삶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현재까지의 전문 역량을 이어서 쓰는 역할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는 대체로는 집중과 선택, 도전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과 가정에서의 다양한 관계와 삶을 잇는 징검다리로서 존재한다.

동북권 50+워킹그룹은

동북5구(성북, 노원, 강북, 중랑, 도봉구) 50+공익활동 단체 및 개인이 함께 모인 분야별 네트워크로써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함께 50+ 일과 활동의 시작과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동북권 50+워킹그룹은?

서울시동북권NPO센터와 함께

50+당사자 포럼

50+워킹그룹(2017년~)

*2017년:50+당사자 공론장-->동북권NPO 50+워킹그룹 당사자 의제 발굴
지역사회에서 놓고, 배우고, 일하는 50+의 지속가능성 만들기

“50+당사자 돌보기와 치유”

“일에 대한 사회적가치전환“

”세대통합적 역할“

”지역·생활정치 모니터링 등 정치사회적 참여자로서의 역할

*2018년 : 공익활동가 11인의 세상사는 옴니버스<햇살 그윽한 언덕에서>
인터뷰집 발간-->공익활동가에게 듣는 공익활동의 현재와 미래

*2019년 : 50+활동가의 돌봄과 성장 미션<질문 감각을 키워라!>

동북권 50+육구와 마을자원 알아보기 <어서와! 50+북부 캠퍼스>

간담회 진행. → 50+북부캠퍼스 설립 개관 안내 / 일과 여가, 지역자원 파악

*2020년 : 50+당사자 및 동북권 지역사회단체와 50+북부캠퍼스 간 협력기반마련을
위한 <동북권 50+ 공동의제발굴 설문> 진행 및 포럼 진행

50+워킹그룹은 동북권 지역과 50+가 공익활동을 상상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당사자
활동가 중심의 「동북권 50+ 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리된 다음 조사결과와 제언으로 50+북부캠퍼스에 상호 협력의 필요와 의지를 밝힌다.

「동북권 50+ 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목적

1. 서울시 동북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50+세대 활동가의 50+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2020년에 입주예정인 50+북부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북권역의 50+활동 민관협치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3.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50+세대 활동가가 50+정책을 인지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앞으로 동북권 50+ 공익활동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동북권 50+워킹그룹
- 동북권NPO지원센터 후원

○ 조사기간

- 2020년 5월21일~6월30일

○ 조사대상

- 동북5구 만45세~64세의 연령대 지역활동 참여경험자 및 50+워킹그룹 참여자
- 총 315명 응답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첨부자료 참고)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 50+세대의 지역 활동 참여자 중심의 동북권 50+ 공동 의제 발굴을 위한 조사인 이유로 성별 구분을 하지 않음.

■ 설문지내용

「동북권 50+ 공익활동 공동의제 발굴」 관련 설문

50+워킹그룹은 2017년부터 동북권 단체 및 개인의 마을공익활동 경력이 있는 동북5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50+당사자로 조직되어 50+의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인식의 전환과 지역연대작업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0+ 삶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가 지역특성과 주민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를 바탕으로 50+북부캠퍼스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50+북부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북권역의 50+활동 민관협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북권 50+세대와 다양한 사회공헌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동북권 공익활동 공동의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 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상

-만45세~64세의 연령대 지역활동 참여경험자

50+북부캠퍼스(주체/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2020년 10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창동 1-8)에 개관 예정이다.

1. 동북권 중 주요 활동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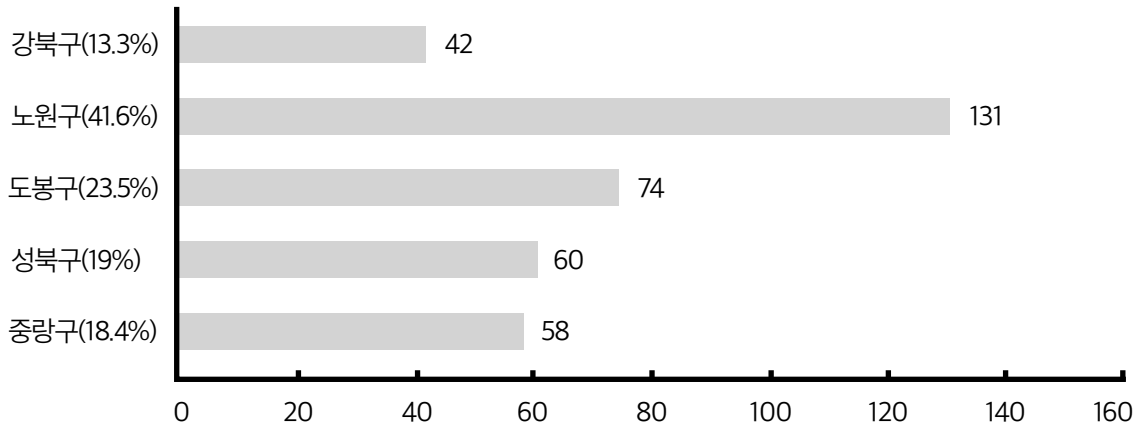
- ① 강북구 ② 노원구 ③ 도봉구 ④ 성북구 ⑤ 중랑구

2. 우리 지역의 50+를 위한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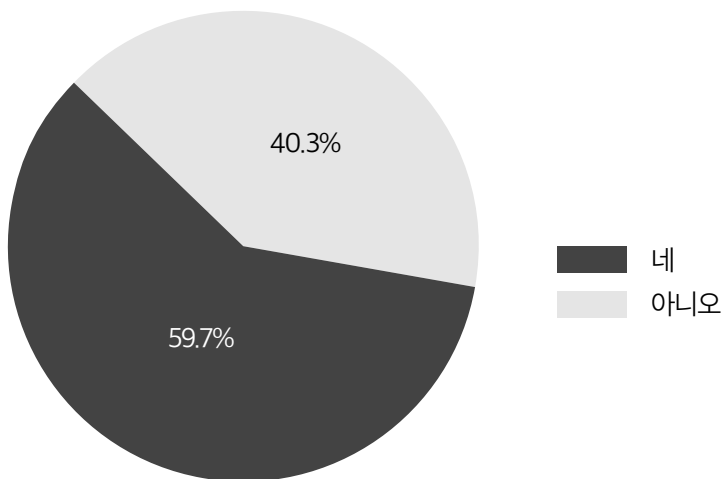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1. 동북권 중 주요 활동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응답 3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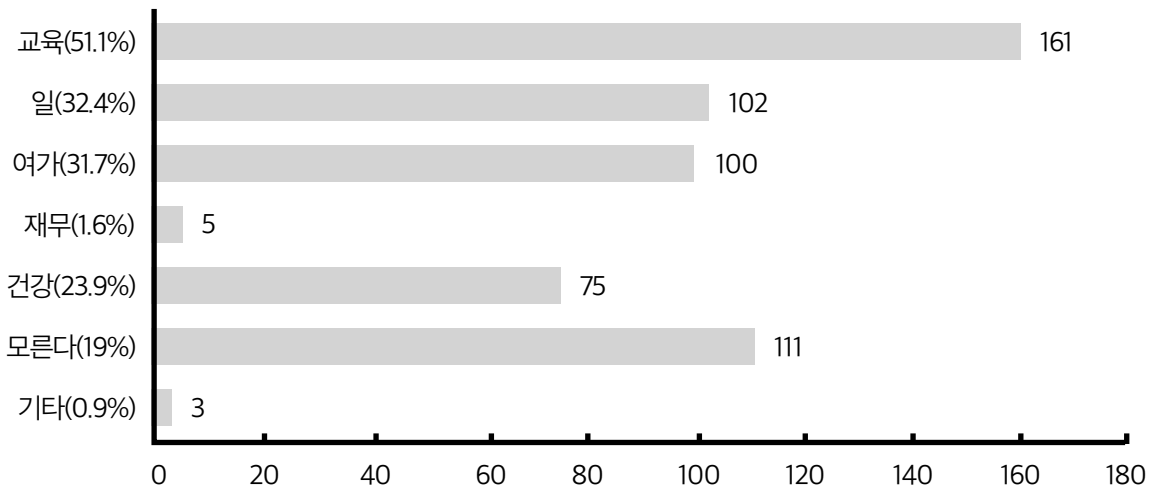
노원구에서 교육장에서 다수가 참여. 타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반면 강북구는 워킹그룹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요활동지역으로 강북구가 13.3%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2. 우리지역의 50+를 위한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 3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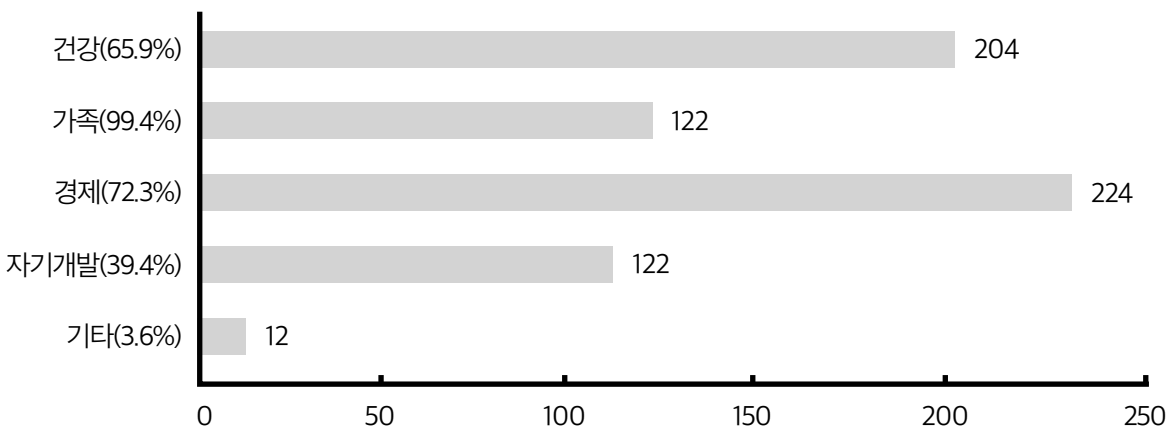
지역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지역의 50+활동에 대해선 40%이상이 잘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듯하다)

3. 우리지역에서 50+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응답 3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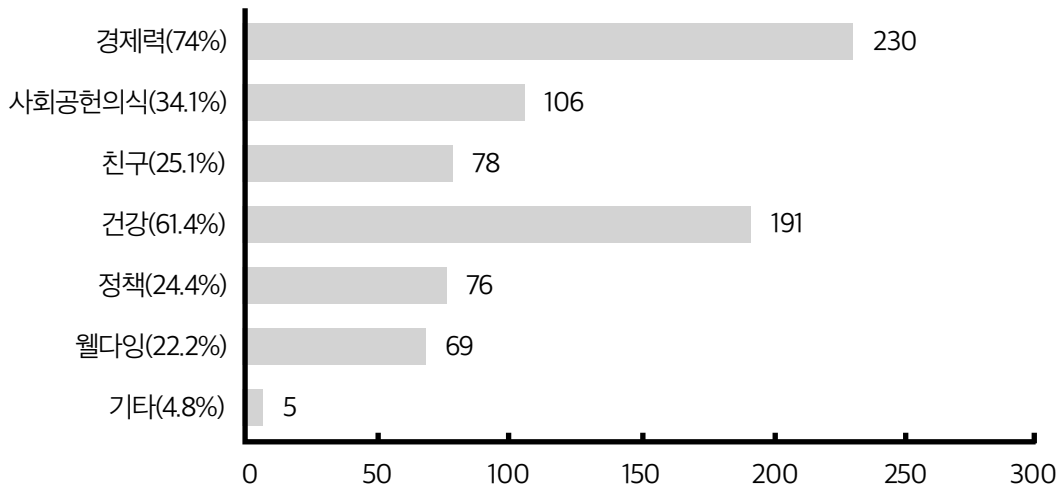
교육 161명, 일 102명, 여가 100명, 건강 75명의 응답자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재무는 5명의 응답으로 정책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응답은 복수선택으로 중복된 응답자가 많은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111명의 응답자와 없다고 응답한 기타의 1명이 있어 36%의 응답자들이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기타부분에 2명은 귀농교육과 예술문학교양을 기록했다

4. 50+로써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응답 310명



현재 걱정되는 부분으로 응답자 310명 중 경제 224명, 건강 204명으로 높았으며, 가족과 자기개발 부분이 각각 122명으로 조사 되었다. 기타부분 응답자의 12명은 미래, 삶, 생활유지(가족의 식사 등), 돌봄 등이 7명, 귀농과 도시농업이 2명, 문화공간과 예술, 사회정의 부분이 3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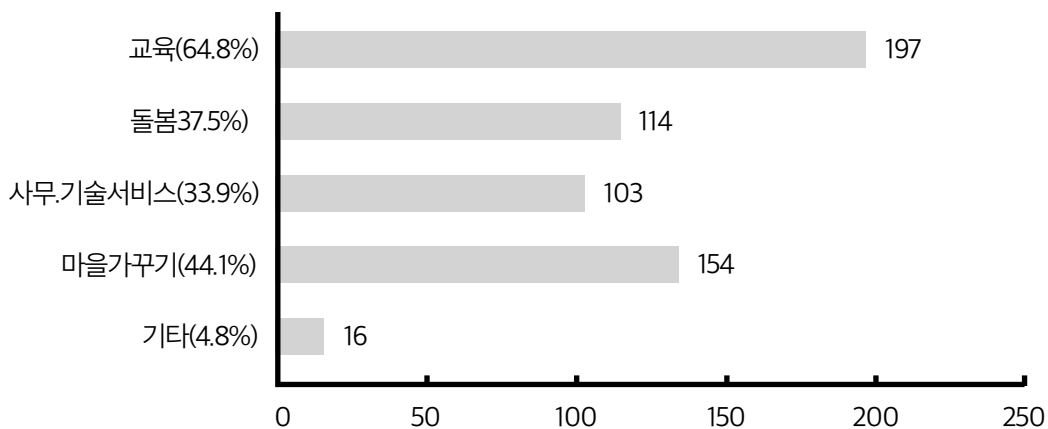
5. 50+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응답 311명



50+를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한 조사엔 경제력이 230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191명으로 두 번째 중요하게 기록되었다. 사회공헌의식 106명, 친구 78명, 정책 76명, 웰다잉 69명 순으로 기록되었다. 기타부분에 5명 중 건강과 경제력, 사회공헌부분에 3명이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었으며, 예술과 취미가 중요하다고 2명이 답했다.

6. 50+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택하신다면 어느 분야의 일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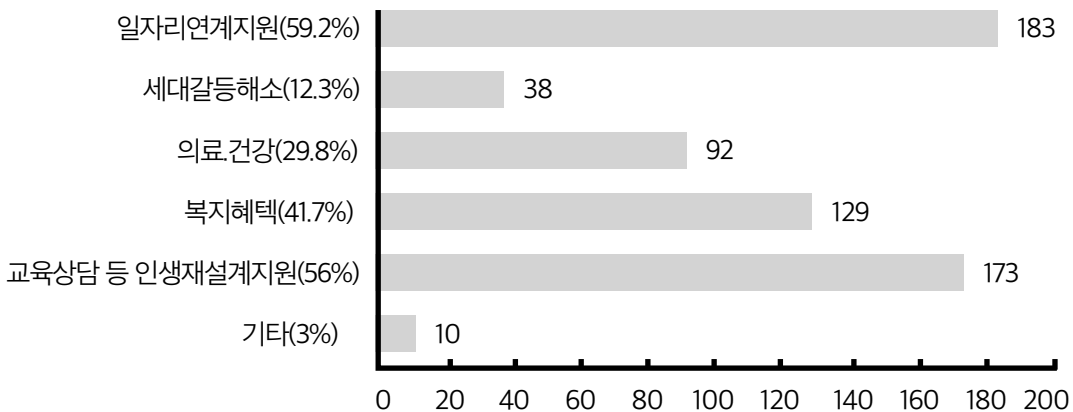
- 응답 304명



향후 일자리에 대한 희망에 대해 교육부분이 197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가꾸기 154명, 돌봄 114명, 사무기술서비스에 103명이 답하였다.

기타부분에 16명이 웰다잉작업, 배달업, 복지, 사회적경제, 상담 등 서비스파트에 8명, 도시농업 등 마을가꾸기파트에 3명이 위의 내용에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하였으며 뮤직스튜디오, 사진찍기, 여행 쪽에 5명이 답하였다.

7. 50+에 대한 지원정책중,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응답 309명



지원정책중 참여희망부분에 대해선 일자리연계지원 183명, 교육등 인생재설계지원 173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혜택 129명, 의료건강 92명, 세대갈등해소 38명으로 나타났다. 기타부분에는 10명의 응답으로 일자리 및 참여비 지원에 2명, 힐링, 예술부분 2명, 공동식사에 3명, 마을활동에 2명, 환경에 1명으로 나타났다.

8. 우리지역에 서울시50+캠퍼스가 생긴다면, 50+캠퍼스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응답 148명

(*현장의 소리인지라 중복된 답들도 응답표현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 일자리 관련응답

- 자기개발 할 수 있고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창출 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생기길 바랍니다.
- 50이후를 준비해놓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과 제2의인생을 준비되도록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바라본다.
- 다양하게 생긴 일자리를 잘 활용하여 적응 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트레이닝 나이가 있는지라 이해하는 폭이 좁다보니 슬로우 슬로우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연계지원사업이 활성화 되어 중장년층의 경제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50플러스 캠퍼스가 되기를 바람.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아동관련 기관에서 사무.행정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현실적인 인건비를 마련해주세요.
- 교육수업참여시 참여활동비 지급 원함.

- 일자리가 연계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격증 취득)이 있었음 좋겠다.
- 자기개발과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고 건강에 관심이 있다.
- 상담시 상담자 · 내원자 비용 지원
- 일자리가 필요 합니다.
- 교육과 일자리연계
- 연령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 요청
- 노후 일자리와 관련된 전보.교육.취업
- 50+내 일자리 참여와 주말 자격증프로그램
- 기술전수
- 경제적 수익모델
- 일자리연계 서비스 활동
- 자기개발과 여가, 일 / - 취업 프로그램 / - 일자리

□ 교육 및 프로그램 요청 관련응답

- 토론을 통한 교육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인생재설계 재교육 신세대들과 공감하며 사는법 유튜브등 미디어 만드는 법
- 50 이후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사회에 선한 영향력주기
- 프로그램이 저녁이나 휴일에도 있었으면...
- 같은 관심사끼리 모여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사회적 일거리도 되는 모임들을 활성화 했으면 함.
- 다양한 영역의 배움터
-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부부갈등상담 웰다잉사업 참여
- 수명이 길어짐에따라 저가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음. 젊은 사람들과 나 이든 사람과의 소통 공간 원함
- 크고 작은 모임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습니다.
- 노년을 위한 대비책을 고민하는 정책을 적극마련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센터 교육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교육, 정보제공,
- 홍보 확대하고 기관 정보를 알려서 많은 이들이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 지역 50+의 수요가 민감하게 수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램
- 가르침이아니라 시니어들의 사회적 경험이 사회전반에 공유 기여되도록 인큐베이팅
- 수경재배와 관련한 활동(강의, 지원사업, 공동체활동 등)을 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강의수강
- 다양한 교육
- 실제 도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즐거운 연극 교실운영
- 우리마을해설사교육운영
- 다양한 문화체험과 배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동북권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조모임지원과 재교육 강의
- 50+활동가들의 교육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도시농업, 수경재배, 복지원예
- 개인의 역량 취미 건강관리에 관한 일
- 노인을 위한 재교육
- 은퇴후 다양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령에 맞는 시스템과 건물 설계
-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 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현실에 맞는 활동이라야...
- 각 구별 욕구에 부합 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 다양한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위에 게재되어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 마을살이
- 중장년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50플러스 캠퍼스가 되어주시길.
- 50대를 위한 정책 함께 의논하기
-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주는것
- 정년퇴직자를 위한 활동적인 모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심리상담분야
-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주세요
- 삶의 활기, 의욕을 되찾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막 설계
- 민중가요 밴드
- 교육
- 책쓰기 /- 글쓰기강의

□ 마을사업 및 지역활동에 관한 응답

- 총명함이 부족한 나이로 학습보다는 마을에서 일거리와 놀거리, 관계맺기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 중년층 부모들의 자녀세대 인간성지도력에 관한 정신적교육분야, 사회성복원 등
- 사회봉사, 유아,아동 (편부모)돌봄.
- 지역활동공유, 역량강화지원
- 장애인들의 일자리 안정화
- 좀 더 실질적인 50+에 대한 논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농업 등 이웃과의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회복 (현재 골목과 벽에 채소를 시험 삼아 기르고 있는데, 이웃의 관심과 대화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중심 회원들의 마음을 살피며 낙오자가 없는 신뢰 받는 리더양성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 50+세대로서 코로나19 로 인하여 드러난 우리사회의 민낯인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캠퍼스가 마을단위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로컬과 연계된 활동 강화
-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일하고 싶다
-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봉사활동
- 일부가 아니라 많은 주민이 함께 할 활동
- 건강하게 마을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활동
- 어르신분들 마음 케어. 소외된 아픈 분들을 배려활동
- 당사자 직접 활동
- 건강한 돌봄과 살림에 대한 토론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 50+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가 낱알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 특히,노인복지
- 지역의 소외된 약자 지원
- 노인 및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 아이존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 저소득층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교육
- 장애자녀 일반자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50플러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일반 복지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 봤던 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을 해 보면 어떨까?
-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캠퍼스가 되었으면
-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 싶다
- 나의 삶과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
-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
- 공동체 만들기
- 지역활동 / - 지역 봉사

□ 기타

- 모르겠다.
- 동북권 시작을 축하합니다.

■ 결론

- 지역 활동참여 경험이 있는 50+세대 활동가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이나 당사자들의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50+활동이나 정책에 대해 30~40% 이상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50+ 활동이나 정책의 실행에 대한 홍보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 지역의 당사자들의 50+ 정책에 대해 50%이상이 교육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 이는 설문 응답자 중 다수가 교육 분야에 활동하시거나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던 원인이 있다고 본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참여가 부족한 작업이었다.
- 동북권 지역의 당사자들은 건강과 경제 부분에 대해 걱정하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50+ 동북권 지역활동가들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교육파트에서 활동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마을가꾸기에도 참여 희망이 높은 편이다. '일자리를 원한다' 라고 응답한 다수의 의견을 살펴볼 때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해결만을 위한다고 보다는 경제적, 자아성취, 불안, 노후대책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 50+ 정책에 대해 일자리연계지원을 높게 희망하며 두 번째로 교육 상담 등 인생재설계 지원에도 희망도가 높은 편이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사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50+세대의 여가에 대하여 비용과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 300여명이 설문에 참여한 50+마을활동참여경험자와 마을단체활동가는 '50+' 당사자로서도 마을을 중심으로 사회적과제에 관심을 가지며 마을에서 단체활동으로 함께 해결할 기대와 의지를 보인다.
- 동북5구의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에 대한 설문에만 그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 제언

(*2019년 동북권50+워킹그룹 공론장에서 주로 나온 의견 : 사회공헌일자리/ 여가)

1. 기존의 마을참여형 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와 필요를 소통하게 하여 50+삶에 대한 개인과 마을의 지역특성에 맞는 배움과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2. 동북권 50+정책의 생산과 지원을 위해 '마을 안에 있는 50+,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50+'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는 50+북부캠퍼스 민관협력 체제를 구성한다.
3. 동북권의 실효성 있는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 활동을 구상하고 지원한다.
4. 50+마을활동가를 비롯한 50+당사자들의 안정적이고 보람된 인생 2막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보장체계와 구조를 마련한다..
5. 단순히 경제적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의 양적인 개발과 지원에 치중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50+세대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복합적으로 대응할 다각적인 일자리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6.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어지는 활동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0+공익활동에 대하여 교육을 설계하고 필수 지원한다.

MEMO

MEMO

MEMO

MEMO

MEMO

50+세대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포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14:00~16:00

발행일 2020년 11월 03일

발행처1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두승빌딩 201호
전화 02-906-2018
이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www.dbnpo.kr

발행처2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소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전화 02-460-5050(代)
이메일 policy@50plus.or.kr
홈페이지 www.50plus.or.kr

편집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